



서울大同憲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7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28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張一楓 | 편집주간: 許 璣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FS: 066-004-0011

영어 협력: 영광 | www.snu.ac.kr

바둑대회 대성황 - 서울대인 친목 군계 다져



관악출수

날씨도 화창한 일요일인 지난달 19일, 학기말 시험이 막 끝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서울대 선배 배 동문들과 교직원, 재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친목과 단합의 한마당 바둑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11월에 이은 두 번째 동문 바둑대회다. 초여름 이리저리 벌써 섭씨 30도를 넘보던 이날 2백50여 동문 기사(棋士)들은 저마다 무더위를 잊고 심오한 오로의 삼매경에 빠져 흑백의 묘미를 만끽했다.

동문 취미활동을 꼽자면 매년 10월에 열리는 '홈컴데이' 이 겹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대표적이다. 총동창회 행사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27 회째를 맞으며 서울대인들의 친목과 결속을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범 동창회 차원의 동문 취미활동으로는 이 등산대회가 독보적이라 거의 유일하다 시파 했다.

관악캠퍼스 달군 동문 手談

물론 관악골프대회나 스승의 날 기념 사은 골프대회를 비롯 크고 작은 골프모임이 없지 않으나 참여인원이 제한 적이나, 그밖에 단과대학별 전선 테니스대회나 등산대회, 체육대회, 풍기회 골프대회 또는 음식경연대회 같은 이런 저런 모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과대학이나 기별 모임의 성격과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제2회 동문 바둑대회가 성공리에 막 을 내려 10월 등산대회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며 범 동창회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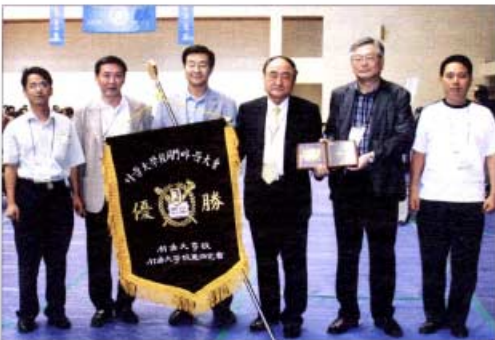
수담(手談), 오로(烏鵲), 학기(奕基), 목야초(木野狐)... 모두 바둑의 다른 이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수담' 은 절묘하다. 말없이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뜻이었다. 바둑판에 검은 돌(黑) 흰 돌(白)을 서로 번갈아 가며 내려놓으면 그 뿐. 왜 말이 필요하겠는가. 침묵 속에 상대 방 놓아 전하는 메시지를 신중히 헤아리고, 그런 다음 이 변에는 이쪽 메시지를 담은 돌을 역시 침묵 속에 내려놓 으면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바둑을 신산불음이라 일컬었 던 연유를 알만 하다.

그러나 바둑은 단순히 신산불음은 아니다. 세상에 바둑처럼 두뇌 다름이 지열한 게임도 없다. 한 판을 두더라도 객관적인 눈으로 판세를 살필 줄 아는 상량 판단력, 상대방 전략과 속아움을 꿰뚫어 조그마한 기미도 놓치지 않고 역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 판세가 불리할 때 상대방 허점을 노리고 의표를 찌러 한순간에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이 모든 것이 요구되는 전격투구의 세계가 바로 바둑이다. 그래서 바둑을 '두뇌 스포츠'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지만 나리의 두뇌들임을 자부하는 서울대인이려면 비영어 채경민한 덕목들이 아니겠는가.

(仲)

본회는 지난 6월 19일 모교 종합체육관에서 제2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林光洙회장(좌로부터 네 번째)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공대동창회팀에게 우승기와 기념패를 수여했다.



張一楓상임부회장이 金度衡문군(左)에게 최강조 우승패를 전달했다.

맡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制斗, 李樹均, 南仲九, 金鎮錫, 安炳燾,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龍,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사람 徐士植, 李元聖, 高永才,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現, 朴聖姬, 朴勝俊, 金鎮國 편집장 安興堯 편집부 기자 朴宰亨, 裴智鎔,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 트리나무 팟장

요즘을 신세대들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싸이월드'라는 가상공간에 나뭇대로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 젊은 세대 네터즌들은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www.cyworld.com 가상공간으로 들어가 자기들끼리 근황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이렇게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들 이들은 '싸이질'을 한다고 표현한다.

싸이월드 회원들은 대부분 블로그(blog) 서비스인 '미니홈피(minihomepy)'를 만든다. 쉽게 말해서 가상공

짜이월드 회원이 1천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층 표상을 집기위해선지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도 싸이월드에 뛰어들고 있다. 한나라당 차세대대표가 지난해 2월 제일 먼저 이곳에 미니홈피를 개설한 이후 하루에 수천명의 방문객이 몰려 최근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2백9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MBC서울시장도 지난해 5월에 홈피를 개설해 지금까지 방문자 수가 48만명을 넘어섰고, 고건 前총리도 지난해에 뒤늦게 미니홈피를 연 뒤 벌써

'싸이월드'를 아시나요

간에 마련한 자기 집에 프로필을 비롯해, 일기장, 사진첩, 게시판, 방명록 등을 정성껏 장식해 놓는다. 이 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사진과 글을 통해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방문객들은 집주인의 글과 사진을 보고 느끼 점을 직접 남기거나,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사진이나 글은 '파기기' 스크립을 통해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친지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감격적이거나 흥미로운 사진이나 글은 싸이월드 가상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된다. 한 마디로 '싸이월드'는 현실세계에 비해 거리·시간·질차 상 복잡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고, 또 두렵하다. 신세대 네터즌들의 감각이나 취향에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2001년 9월 미니홈피 서비스가 시작된 지 3년만인 지난해 9월



金仁圭
KBS 이사
본보 논설위원

16만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필자는 지난해 10월 미니홈피를 열어 가족 사진이나 남강산 단풍 그리고 타이거 우즈와 기네스사건 등을 사진첩에 올리고, 게시판에 글도 가끔 올리

고 있다. 아직 미니홈피가 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방문객이 늘

더니 어느새 방문객 수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친지들이 이 미니홈피를 통해 몇몇 사진들을 보고 반가움의 반응을 보내올 때나, 대학원 제자들로부터 이른바 '신세대'의 싸이질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일촌 맺기'를 제의 받았을 때 수고한 보람을 느낀다.

혹시 신세대들의 가상세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www.cyworld.com/kbskik를 한번쯤 방문해 보십시오.

동문칼럼

방송광고 독점판매 이대로 좋은가

20년 전 미국 이민을 떠난 친구가 부모님 산소를 둘러보기 위해 한국에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한때 나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절친한 동료였다. 정말 오랜만에 옛 얘기를 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얘기는 우리가 열정을 바쳐 일했던 광고로 흘러갔다.

그런데 유독 그 친구가 이민을 가기 전이 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방

익상에서 보더라도 정부기관에서 우리 나라 모든 방송사의 영업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 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체제는 우리 나라 방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청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권리를 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광고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비용을 과다지출하게 하고 나아가 자유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의 광고 마케팅

팅의 활성화가 경기진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경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개혁의지와 WTO의 DDA협정 등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춘각을 닦아 변화와 개혁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방송광고 규제만은 늘 제 지리걸음을 하고 있다. 방송광고도 시장원리에 맞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때만이 경제 활성화나 방송



金貳煥
(신대원 72-75)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송의 공익성 등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지난해 한국미디어협회라는 한 회사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사업을 위해 정부와 법적 투쟁을 벌인다는 소식이 들렸다. 얼핏 들으면 개인 권리였에 맞서는 작은 회사 다윗이 염심된다. 하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방송광고 판매독점 해소와 매체시장의 불균형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금 현재도 시청률 경쟁은 치열하다. 그것은 광고판매의 정부 독점과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

제2회 바둑대회 ... 동문들의 스포츠축제로 정착



林光洙회장은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을 배가시키는 바둑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趙 淳慶여교수(左)와 洪鍾實사범의 기념대국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6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동문 및 재학생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섯 차례의 대국을 치렀다. 1백32명의 동문 및 재학생이 참가한 개인전은 기력에 따라 최강조·A조·B조·재학생조 등 4개조로 분산됐으며, 단체전은 5인이 한 팀을 이뤄 총 16개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공대동창회 단체 우승 개인전에 金度衡동문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煥상임부회장, 尹勳煥·孫京植·孔大綱부회장, 許 道士부총장, 南正鉉공대동창회장, 河權益의대동창회장, 모교 鄭憲泰총장, 趙 淳慶여교수, 李美嫻학장, 成憲範법대 학장, 崔松和교수를 비롯해 趙錫賢(교수94)·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인 南浩亨(프로초단)·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기원이 대회를 주관하고, 세계사이버기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바둑사이트 '사이버모교'가 생중계를 맡았다.

특히 SBS 申東憲은심위원(대한 바둑 OB연맹 회장)과 바둑평론가인 중앙일보 지형수수석서무위원이 단체전(인문대 출신팀)에, 崔 南成국회의원의 개인전에 각각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1·2회에도 출전한 참가자수가 전체의 72%에 달해 한층 더 회기에대한 분위기가 축제에 가까웠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안녕과 건강 그리고 화합을 의미하는 흥행의 진전을 되새기면서 이번 바둑대회가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배가시키고, 모교와 동창회가 한뜻 한마음으로 더 멋진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자그마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鄭憲泰총장은 "말이 안 통하던 사람과 바둑을 하면 마음까지 통하게 된다는 심오한 이치를 되새기며 바둑을 함께 거름으로써 언어장벽이 무너지고, 소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장을 넓히고, 깊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趙 淳慶여교수는 격려사에서 "바둑에는 나날 패는 내가 아니고 참을 때는 참아야하며 또 승부를 단정하지 할 때는 승부수를 건져야 하는 등 인간의 이치가 모두 담겨져 있다"며 "서울대 동문과 같은 우수인재들이 바둑을 즐김으로써 그 속에서 얻은 진리를 교훈 삼아 나라를 위해 사공되여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申東憲은심위원이 모교 바둑부와 기우호에 대한 소개를 통해 "처음에 각 과대학별로 재학생들이 바둑대회에 출전했으나 이곳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게 되면서 77년 서울대 바둑부가 만들어져 그 해 제1회 서울대-동경대 정기교류전을 개최하게 됐으며, 동경대 교류전에 출전했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우호를 설립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한 뒤 "관악캠퍼스 이전의 정교 남들과 80년대 이후 후배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개최된 동문 바둑대회가 선수배간 친목을 나누고 좋은 민주의 장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본회 孫一煥상임부회장의 대회 요강 남독과 洪鍾實사범의 장려금 대국전설 설명에 이어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1차 대국을 시작했다. 4국까지 진행된 단체전 결승에서는 공대동창회가 申秉憲(재학94)·이희진(재학94)·윤민·남정강한 기력을 자랑하는 인문대 출신팀을 맞아 집전 끝에 3대 2로 우승을 차지했다. 3국에서 공대동창회에 패한 사회대동창회는 마지막 대국에서 대전지부동창회를 누르고 승점에서 인문대 출신팀을 앞질러 준우승을 차지했다.



崔松和교수(左)와 심사위원인 프로초단 南浩亨교수가 대국을 펼쳤다.



林光洙회장이 모교 바둑부 명승현군(左)에게 격려금 전달

한편 주상 결승전에서는 공대동창회 李待然(성유82·86)동문과 인문대 출신팀 林浩文(국문68·79)동문이 맞붙어 李待然동문이 승리했으며, 결승대국은 사이버모교를 통해 중계됐다. 이날 우승한 공대동창회는 1회 우승자인 차대동창회로부터 순환 우승기를 전달받았으며, 상대와 함께 1백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온라인 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을 받았다.

개인전 최강전 결승대국에서는 전년도 우승자인 김형균(컴퓨터01입)군에게 아쉽게 패했던 이희진(金度衡(성유80입)동문)이 2년 연속 결승에 올랐으며, 공대 후배인 이희진(金度衡(컴퓨터95·02)동문을 맞아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생중계로 진행된 개인전 결승대국은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인기 드문 명대국이었는데 경기를 받았으며, 우승자인 金度衡동문에선 상패와 함께 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온라인 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이 수여됐다.

대회사 진행회는 동인 洪鍾實사범과 모교 趙 淳慶여교수, 명지대 남정강교수와 모교 崔松和교수의 기념대국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바둑TV 진행과 사이버모교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7단 趙錫賢씨가 참관, 대회에 출전한 딸 한시민(조경이01)양을 응원하며 부녀간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1회 참가자의 72% 출전 노트북 등 경품도 '푸짐'

시상식에 앞서 간담파티너스 尹弘老(건축81·85)부장이 본회 장학법인 선중공주 조감도에 관해 보고했으며, 본회 林光洙회장은 "장학법인이 완성된 재학생에게 많은 장학금 혜택을 돌아줄 뿐만 아니라 모교 교수들에게도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회 입상자 시상식이 있던 후 본회 林光洙회장이 모교 바둑부 대표인 방승현(경제04입)군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품 추첨행사에서 노트북, 최신형 휴대폰, 드럼세탁기, MP3플레이어, 책꽂이 상품권, 화장품SET, 본회에서 제작한 시계·벤트SET 등을 받았다.

제3회 대회도 동문 바둑대회는 2006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表)

각 부문별 수상자

◆단체전

△우승: 공대동창회 李允浩(기계64·71)·朴勝彬(화학공학65·69)·李康順(화학공학65·69)·辛又斌(산업84·88)·李待然(성유82·86)동문.

△준우승: 사회대동창회 吳斗煥(국제경제82·89)·尹潤鉉(국제경제82·89)·安成文(정치83·87)·金 顯(경제85·90)·金錫煥(경제85·92)동문.

△공용 3위: 대전지부동창회 林在光(물리교육75·79)·高麗都(경영78·83)·宋東鎭(공법82·86)·安下雅(화학82·87)·崔承範(경영85·89)동문. 인문대 출신팀 呂冠榮(종문62·67)·朴浩文(국문68·79)·申秉憲(미학73·78)·李 敏(서양사73·80)·姜繼根(불문82·87)동문.

◆개인전

△최강조 우승: 金度衡(성유80입)동문. △준우승: 尹熙賢(컴퓨터95·02)동문. △공용 3위: 尹忠根(정치65·70)·李鍾賢(전기70·77)·李鍾基(자연79·83)·金熙文(계산통계85·89)동문.

△A조 우승: 盧榮植(체육교육65·69)동문. △준우승: 權五龍(물리교육56·60)동문. △공용 3위: 張樂英(기계62·66)·徐河培(불문74·78)·吳煥樹(수의학88·93)·劉智相(전기72·78)동문.

△B조 우승: 李泰憲(법학88·92)동문. △준우승: 李秉憲(약학95·99)동문. △공용 3위: 安昌慶(사회교육93·97)·尹順植(국문81·85)·朴昌旭(지구교육81·88)·金英旼(대학원98·00)동문.

△대학원생조 우승: 조자관(수학교육04입)군 △준우승: 이근영(국4·99입)군 △공용 3위: 이훈주(기술훈련동창회03입)·방형준(경제01입)·연현국(기계항공03입)군, 서승훈(오류05입)양.

“동문총각 9명 짝 찾았어요”

듀오와 만남 이벤트 공동주최

본회(회장 林光洙)와 결혼정보 업체인 듀오(대표 金敏正·독 어독문82·86)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세라론 위커힐호텔 시로코에서 미혼 남성 동문을 대상으로 ‘6월의 아름다운 파다’라는 만남 이벤트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1월 본회와 협약을 맺고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듀오 회원으로 가입한 남성 동문 25명

과 비동문 여성 회원 25명이 참가해 총 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는 4시간에 걸쳐 다양한 스낵식 게임, 커피댄스, 각 테이블 파티, 만찬 등을 통해 50명의 참석자들이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짝을 찾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재복 파터플래너는 “다른 행사와 비교해 남성 참가자들이 동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적고 사회적 격차가 없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상적인 만남 이벤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듀오 마케팅

유석종 제휴파트장은 “서울대 남성 동문들의 경우, 짝을 찾는 데 있어 외모뿐 아니라 지적인면을 동시에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오늘 매칭된 커플도 그런

경향이 엮브인다”고 말했다. 또 “평균적으로 서울대 동문의 경우 1년 안에 커플이 되는 매칭률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 동문은 “원하는 여성과 연결이 돼지 않아 아쉽지만 동문 선배들을 비롯해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2004년 연말 기준으로 듀오 회원으로 가입한 남녀 동문은 2천2백여 명으로 지난 1월부터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락처: 1588-8811)



미술대학

첫 홈커밍데에서 인명록 배포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는 지난 6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대학 아크로광장에서 ‘2005 미술대학 동문 상봉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창회 설립 후 처음 열린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재학생을 포함해 3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동창회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했다. 6년 만에 발간된 인명록도 동문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1시 등하교 시작돼 9시까지 계속된 이날 행사는 체육대회, 기념식, 동문 정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은 ‘All is One’이란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맞춰 입고 모교로 운집장에서 2인 삼각 릴레이, 단체 줄넘기 게임 등을 하며 하나되는 장을 연출했다.

체육행사를 마치고 미술대학 아크로광장에 모인 동문들은 재학생들이 준비한 생맥주를 마시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에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金鳳九회장이 李昌子(응용미술50-55)전임 회장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쓴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崔先珠(응용미술73졸)동문의 남편인 모교 鄭東澤회장은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 어느 때보다 미래 동문들의 활약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비비큐&생맥주 파티와 함께 동문 정기자랑 대회로 이어지며 최고조에 달했다. 정기자랑 시간은 재학생들의 축하공연, 과별 선배 노래자랑, 鄭東澤(응용미술74-78)동문 특별공연, 시상 및 경품추첨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崔東澤(회화53-57)·鄭相和(회화53-57)·李志輝(회화53-58)·金載姪(회화56-60)·鄭暉永(회화56-60)·尹明老(회화56-60)동문 등 18명의 유명 화가들이 홈커밍데이 행사 장면을 스캐치한 작품을 즉석 경품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첫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미술대학 鄭東澤(응용미술69-76)학장, 동창회 孫文子(응용미술62-66)감사, 威和(조소73졸)부회장, 이노디자인 金鳳九(응용미술70-74)대표, 비룡소 朴祥姬(조소81-85)대표 등 많은 동문들이 물품을 협찬했다.

상과대학

6회 가족동반 동산대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차容履)는 지난 6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전강당 앞 버들골에서 동문 및 가족 2백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경기·동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참석자들은 노전강당을 출발해 저수지-승전각-보전대-해태상-월기장을 왕복하며 산후배 동문들과 친목을 다졌다.

등산 후에는 버들골에 모여 음식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레크리에이션과 흥운촌 추억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 이날 최다 참가 기수상은 28명이 참가한 17기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모교 鄭雲澤(경제66-70)총장이 크리스탈 시계 10점, 차容履(경제59-65)회장이 소주 3백90병과 맥주 4백8캔, 한국은행 차 昇(경제55-61)총재가 5만인 상품권 20매, 전국은행연합회 申東赫(경제58-63)회장이 10만인 상품권 3매, 신승식품 曹甲南(경제58-63)회장이 1백만원 상당의 신승제품, 이진산업 朴英珠(경제59-63)회장이



1백만원의 출연하는 등 20여 동문이 물품과 현금을 협찬했다.

ROTC

골프대회서 성금 모금



ROTC동문회(회장 梁任鉉·사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여주 신리CC에서 초대 회장을 지낸 故 李維熙회장에 제2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페리도 방식이 적용된 경기

결과 趙維益(체육교육74-78, 16기)동문이 72타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朴繼文(법학78-82, 22기)동문이 2위에 올랐다. 단체우승은 金鳳九(건축62-66)·金東進(체육교육62-66)·洪宗浩(사회62-66)동문으로 이뤄진 4기에게 돌아갔다.

金鳳九동문은 개인전에서 76타를 기록, 메달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최다 참가상은 7명씩 참가한 7기 동기회와 12기 동기회가 받았다.

한편 이날 2개의 지정 홈에서 말리건을 신시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으며 상암상사 洪性熙(사회사업63-67, 57기)대표가 흥운촌 추첨 행사에 5백만원의 출연했다. (南)

동문 작품 시상 전시회



尹永華 作

'Grid-a landscape05 그리드-동경05'
wire net on photograph, 151x101cm, 2005.

<작가약력>

- ▲84~88년 모교 미대 서양화와 졸업
- ▲91~01년 미리에서 수학 및 작품활동
- ▲91~95년 거위전 10회 및 단체기획전 다수
- ▲93~99년 과2 제8대학 조형예술학 학사·석사
- ▲이런 피라 제1대학 평대웅-수르본 조형예술학 D.E.S 학위
- ▲02년~현재 부산에서 교육 및 작품활동
- ▲현재 고신대 여중학부 회화과 서양화전공 조교수 디전 김려진·관장, 프랑스 아르스날 레지쉬 국제미술가협회 주 작가



해양정책최고과정

독도서 '일본 망언 규탄대회'

해양정책최고과정동맹회(회장 南正明)는 지난 5월 28일 독도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망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1기 동맹회 王基岡회장은 행사 목적에 대해 "동문들의 학구적인 대상과 국가적인 자존심의 대상이 된 독도를 미려하나마 행동으로 지키고자 마련한 대회"라고 말했다.

5월 27일 포항을 떠나 울릉도를 거쳐 이튿날 10시경 독도에 도착한 동문들은 충무공의 해양 이상을 상기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

다. 김동규(AMPP 1기)동문은 "81년도에 서부전선 최전방 백령도에서 해병보병부대 중대장을 역임한 후 25년만에 가본 동쪽 끝 바다였다"며 "우리가 죽어도 지켜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보배임을 깨닫은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王基岡동문과 金一善(AMPP 1기)동문이 각각 3백만원과 왕복배편 및 중식을 제공했으며, 울릉도가 고향인 鄭昌淳(지질과학59-65, AMPP 2기)동문이 오징어, 삼나물 등 지역 특산물을 동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경영대학원

경영인대상 후보 추천

경영대학원동맹회(회장 金大)는 지난 6월 17일 서울클럽 한라산휴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이 걸었던 경영대학원이 내년쯤 다시 문을 열 것이라 반가운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高昌鎰상임부회장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제6회 서울대 경영인대상 후보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여행클럽동호회에 시 7월 22일~26일 중국 중경, 칭징/계, 황석채 등을 여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영인대상 후보추천과 중국여행에 관심 있는 동문은 경영대학원동맹회 사무실(702-33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총회 후 모교 경영학과 朴哲煥(경제78-82)교수가 '전략적 혁신과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朴교수는 강의를 통해 세계 제1의 기업이 되기 위한 경영전략과 자신만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을 설명

상대 88산악회

입학50주년 실악산 등반

상대 88산악회(회장 曁祥昭)는 지난 5월 22일 일하 50주년 및 고회를 기념해 강원도 실악산 대청봉(1천7백8m)을 등반했다.

고속버스를 타고 국립공원 오색 분소에 도착한 동문들은 실악폭포-제2탐라-대청봉을 5시간에 걸쳐 올라갔다. 대청봉頂에서 하루를 묵은 동문들은 23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운각을 거쳐 천불



동계각을 타고 하산길에 올랐다. 曁在九동문은 "이번 산행이 88산악회 회원들 상호간의 우정지수를 한 단계 더 높였고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산행에는 曁祥昭(상학55-62)·金浩榮(상학55-59)·金昇熙(상학55-59)·曁慶煥(상학55-59)·朴基能(상학55-60)·朴海主(상학55-62)·朴秀煥(상학55-62)·沈俊輔(상학55-59)·安永信(상학55-59)·曁在九(상학55-61)·尹夏均(상학55-61)·李相慶(상학55-61)·李鍾九(상학55-59)·李熙淳(상학55-61)·洪官義(상학55-59)동문이 참여했다.

식품·외식산업과정

발왕산서 축제 열어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맹회(회장 朴秉南)는 지난 6월 8일 강원도 평창 발왕산에서 제4차 산행 및 산나물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오전 7시 30분에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모여 용평리조트를 거쳐 발왕산 정상에 도착했다. 이후 뽕밭이 출어 제사간 동안 고사리, 두릅 등의 산나물을 채취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曁明燮(9기) 동산동호회장은 "발왕산 정상은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묵나물, 누리대, 두릅 등 각종 산나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며 "6월 초순이 산나물 채취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산나물 축제를 위해 강원

도에 거주하는 金鍾鎰(9기)동문이 참석해 산나물 종류 및 군락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등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다.

한편 同會는 지난 5월 10일 강원도 홍천 대령비발디파크에서 '제3회 동문분회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韓基永(3기)명예회장, 朴秉南(4기)회장, 골프동호회 高在鎰(3기)회장, 동산동호회 曁明燮회장, 채육이사 金明九(13기)동문 등 90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南)

알림

학과 및 동기 모임 알려주세요!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사랑방입니다.

동창회보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동문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학과 동창회, 동기회, 동호회 등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동창회보 소식란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창회보는 매월 15일자로 발행됩니다. 매월 15일 이후에 열리는 행사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월 20일까지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메일: snua@korea.com



불어불문학과

동문·가족·재학생 한데 뭉쳐

불어불문학과동창회(회장 元 濤)는 지난 5월 28일 모교 관 아카데미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2005 불문인의 날 행사'를 개최

했다.

졸여당대에 형식으로는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가족을 동반한 동문들과 행사진행 도우미로

봉사한 재학생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들이 준비한 먹거리 잔타에서 푸진한 뷔페식 만찬을 즐기며 시작됐다. 이후 모교 미술·노래패·북밴드 동아리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동문 가족들의 숨은 장기자랑을 통해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무르익어 갔다.

특히 어린이 재동문차에서 홍성기(불어불문88-93)동문의 아들이 '있을 때 잘해'라는 트로트 노래를 맛깔스럽게 불러 인기를 독차지했으며, 이번 행사 주관 학번인 75-85학번을 대표해 나온 張在熙(불문75-82)·최봉근(불문85-90)동문이 장기자랑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동승클럽

'유비쿼터스' 주제 포럼

문리대 65학번 보임인 동승클럽(회장 金斗煥)은 지난 6월 2일 서울 삼성동 현대빌딩 6층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동승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자로 삼성전자 기술연구원 柳美蘭(언어65-69)전무

가 초청돼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시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열강을 펼쳤다.

제5차 동승포럼은 오는 9월 1일 목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며, 고려대 기초의학과 李敏雨(의학65-76)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계획이다.

HPM 보건정책연구원

농어촌 의료봉사 활동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동창회 산하 한국보건정책정책연구원(원장 白純之)은 지난 6월 18일~19일 전남 해남군 해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농어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40여 명과 해남군 보건소 직원 20여 명이 참가해 현지 주민 5백여 명을 진료

했다. 특히 성인병 예방 홍보책자를 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간호대학

10월 आय회 행사 준비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敬子)는 지난 6월 8일 모교 연전캠퍼스 임상의학연구소 11층에서 실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10월 15일에 개최할 '아유회 및 베틀시장' 행

사를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李倫京부회장을 행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9월에 열리는 '기아사의 날'에는 기아시뿐 아니라 각 지방지부 이사들까지 초청해 아유회 행사를 지방 거주 동문들의 참석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밖에 연변과학기술대학 간호학과 실습생 지원방안과 간호대 특별과정 회원 인준 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南)

충북지부

연회비 인상안 의결

충북지부동창회(회장 李鶴載)는 지난 5월 31일 청주시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鶴載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단과 임원이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상견례 없이 지내왔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 동문들께 소중했던 점을 만회하겠다"고 말하고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이후 청주대 음대 金泰勳(성악 70-74)교수가 축가를 선사했으며, 신임회원 소개와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활발한 동창회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창회 기금이 확충돼야한다고 의

견을 모으고 일반회원 2만원, 이사 10만원 이상, 회장단 20만원 이상으로 회비를 규정한 회칙을 통과시켰으며, 구체적인 모교 지원 사업을 구상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충남지부

가족 동반 계룡산 등산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6월 12일 계룡산에서 동문 및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동반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룡산 입구 산장호텔에 모여 등산 난이도에 따라 세 코스로 나눠 출발해 2~5시간 동안의 거리를 등반하고 다시 출발지 산장호텔에 모여 저녁식사를 했다.

同會는 매년 6월경 등산대회를 열어 동문간의 친목을 다져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李)



李元觀



“즐기세포연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

문물을 찾아서

吳 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우리 나라처럼 전화를 신청하면 당일 즉시 가설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이는 1980년대 당시 吳 明동군이 장관으로 재임했던 체신부가 전신교환 기 개발에 국가 핵심사업으로 투자해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IT전진국의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정보통신의 큰 틀을 마련했던 吳 明동군을 만나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부총리로서 앞으로 그려 나갈 우리 나라 과학기술 개발정책과 있을 수 없는 동문 이야기 등 개인사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 늘 공직 생활이라는 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부총리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몇 안 되는 공직을 대과 없이 책임을 다하시는 어른으로 남아 계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좌우명이거나 인생관이라고 할까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대과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 예전엔 좀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모시고 있던 윗분들이 물러나면서 ‘대과 없이 물러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해서 못 말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때 ‘어떻게 저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가’라고 느꼈는데 제가 88년도에 체신부 장관을 퇴임하면서 대과 없이 물러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대과 없이 물러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필연히 공인한 자기 능력이 닿지도 않은 일까지 나서서 하다보면 골라 생기기 마련이죠.

제가 여러 경연에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사실 어느 정책, 어느 사람과 일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는 거겠죠. 평소 제가를 주장하는 것은 뒷사람 눈치를 봐서 초보나 부하직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파격정책을 펴 나가는 데에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잘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같이 근무하는 부하직원들과 국민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인생관이 **혹** ‘芝蘭’이라는 화와 관계되어 있는지.

제 호는 ‘芝蘭’라고 새겨져 있어 있는 잔잔한 호수를 의미하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이 지어준 것인데 잔잔히 갈다가 많이 파여 있는

대답 : 본보 사설위원
(조선일보 전문기자)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항상 마음 자세는 그렇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활발한 활동만큼 건강이 중요하실 텐데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비결이 있다면.

장관직을 오래 하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스케줄이 많아서 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거나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주말에 등산이나 골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각종 조찬모임으로 이러한 운동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마음 같아선 지도 남벌처럼 운동도 하고 싶지만 그럴 상황이 못되니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부총리 격상, 중심부처로 역할 강화 분수 지켜 대과없이 물러나고

바쁜 업무와 스케줄을 자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오랜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고 또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일은 바로 대전엑스포 개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대전엑스포를 개최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절이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참신한 ‘이더모 엑스포’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참으로 초조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엑스포 사상 가장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 참가자는 중 명실상부 지구촌의 가장 큰 진전으로 대전엑스포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왜 이 일을 맡았나’ 하는 후회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공인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와서 만장일치로 공인을 받은 과정, 1백8개국 33개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한 일, 세계 엑스포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성공한 엑



에 84년 LA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의 영웅이 됐던 파더 유네스코 조직위원장이 가장 회상해서 옮겨간 곳이 야구위원회 총재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야구위원회 총재의 인가를 배경으로 미국 대통령 자리를 노렸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KBO 총재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 받는 운동인 야구를 활성화시켜 보는 것은 정말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야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펼쳐 보지 못한 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군요.

— 기억에 남는 동문이 있다면 어떤 분인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라고 한다면 예전에 청와라 경제학사에서 하시다가 아산산 묘소 폭락 사건으로

로 돌아간 김 金(외교60년)박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에 입문하게 된 것도 그 분의 권유로 이루어졌는데 그 분은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했고 사생활 하나 거짓말이 없었던 분이었고, 그리고 자신 또한 해박한 경제분야에서 기술까지 모르는 게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아는 것만큼 아들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죠. 상대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납득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설득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정말 똑 같은 분이었고 재갈만 같은 분이셨죠. 그 분께 알게 모르게 배운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그동안 몇 년의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직책을 수행해왔지만 정작 제가 스스로 배워하고자 했던 일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퇴해서 맡게 된 일이 많았지요.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KBO 총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한 번 맡아 일해보고 싶은 자리였죠. 정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KBO 총재에 선출될 당시엔 전부 청와라와 같은 높은 곳에서 결정해 공제를 임명했는데 제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KBO 총재에 만장일치로 제6대 총재에 선출됐는데 그간 청와라의 압력으로 한달 정도밖에 못했죠.

사실 미국의 경우 야구위원회 총재라는 자리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예전

— 공직에 있는 후배 동문들한테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남들이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저는 ‘상실한 사람이 돼라’고 당부하고 싶군요. 가끔 강연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뒷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금은 자기 분수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 능력만 갖는 사람이 많아 어려운 시화입니다.

— 그런데 요즘 축하드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1세기 경영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최근 직원 직무평가제와 같이 과학기술부 내의 혁신도 부총리의 경영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네, 감사합니다. 미려한 경력으로 나라 21세기 경영인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 대해 여러 모로 주부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쌓은 경험들을 통해 저의 정부의 운영에도 이같은 경력이 통째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서비스 질과 생산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품질 좋은 정책, 일류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부총리께선 전자공학 박사로 체신부장·차관을 지내면서 우리 나라 정보통신 혁명의 토대를 쌓아오셨습니까. 그간 우리 나라 IT분야 발전에 기여하신 역할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IT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육성·지원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과 IT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신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1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에서 전자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정보통신(TDX) 개발사업에 2백40억원과 연구원 1천여 명을 투입해 TDX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열 번째 TDX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됐고 여섯 번째로 교한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됐죠.

또한 컴퓨터와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백억원의 장비와 4백억원의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당시 삼성, 금성, 현대를 공동개발에 참여시켜 6개월 후 미국, 일본에 이어 4메가바이트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 나라 IT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는 저 개인으로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 최근 黃錫鎬교수가 난치병 환자의 세포로 배아줄기세포로 복제 배양에 성공하며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패거리는 전 세계 수십만 난치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며 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중에는 거부감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난치병 치료를 위해 선택적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스페인에서는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법령의 제정을 추진중인 것을 보면 세계가 이 연구의 중요성을 점점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미하에서도 줄기세포 증진법안이 통과됐으며 캘리포니아주도 미국 행정부 중 최초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법을 통과시켜, 향후 10년간 3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UN에서는 '인간존엄 및 인간성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이는 구속력 있는 협조가 아니며 선언문의 취지로 보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구성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회의를 통해 연구내용을 엄격히 심사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더불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 우주산업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21세기 세계를 지배한다는 미국 월트디즈니 보고서의 지적과 같이, 우주개발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전략사업이며 고도의 신뢰도와 정밀도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기술을 확보할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요.

또한 인공위성을 이용한 기상과 해양의

부서로 개편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R&D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여 평가할 수 있는 중심부처로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경제정책, 산업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과학기술부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요. 크게 보아서 우리 나라 경제구조를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달리진 혁신단원 과학기술부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연구환경 e-Science 프로젝트 사업 등 상당히 크고 야심 찬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의 개발과 투자만큼 산업화로 이어져 얼마나 국가경제력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가 연구로 끝나고 개발이 개발로 끝

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10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는 우리 국민의 차세대 먹거리로서 객관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정부에서 표방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현재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중심사회'란 온 국민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과학적 효용성을 바탕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원리로 삼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교역와 사회, 청년실업, 국가안보 등 사회 문제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제2의 과학기술임박'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표입니다. 애전의 과학기술임박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총리께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 오신 줄로 압니다.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과 올해 행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소년과 일반국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과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해부터 민간 주도의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말 그대로 과학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학의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운동입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 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마인드가 형성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학부포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인 가족과학축전, 대한민국과학축전, 국제과학영상전 등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을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지역 테마과학관, 생활과학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의 과학문화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 오늘 이렇게 비좁은 기온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뜻 부총리님은 62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 편입학, 66년에 졸업했다. 72년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육사 부교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체신부장·차관, 대전엑스포 위원장, 한국지구위원회 총재, 건설교통부 장관, 테이콤 이사장, 동아일보 사장, 그린패밀리연합 총재, 아주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리는 차우영기자)



우주개발 중요성 인식, 많은 투자 '사이언스 코리아' 과학마인드 형성

정밀관측과 통신·방송서비스 등 상업적 이용을 위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대전 엑스포 개최당시, 우주정거장 '미르'를 그대로 옮겨와 전시하기도 했고,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을 뽑는 이벤트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어 안타깝게도 남기에 항상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2007년 10월에는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과학기술수상 2호를 우리 나라 고공 우주센터에서 우리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실감나실 정도로 달라진 점이 있나.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기 이전에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이나 조정의 역할보다는 타 부서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추진되는 집행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했었지요.

그러다가 작년 10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나고 있지 않으나 열려가 되는데요.

그간, 정부에서는 선도기술 개발 사업과 프레임이 사업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반기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선도형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인 수확 또한 거두고 있지요. 기령 G7사업의 경우 GDP에 대한 기여율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해보면 약 5.1%정원율이 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같은 연구개발 후속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실용화로 신속하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작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성장전진을 발판한다는 구체적인 비전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경 시장진입이 가능한 지능형 휴대폰,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신인 39개 제품을 선정해 여기에 필요한 1백53개의 원천기술개발과제에 착수했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는 제도개선,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 건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은 핵심기술의 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13대 회장단

명예회장



손 경 식(23기)
CJ부
대표이사 회장

회 장



박 영 준(35기)
(주)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회장

고 문

(직전 회장)



김 정 국(45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

교문단

기수	성명	직명	직위	기수	성명	직명	직위
1	박 선 갑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7	문 석 민	서보물산(주)	회장
2	유 재 훈	한신증권	대표이사	9	송 범 순	(주)AREKO	대표이사
4	장 성 원	한국무역진흥공사	대표이사	31	조 내 벽	한국라이프그룹	회장
6	이 희 립	중앙화학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양성욱(17기) 한국농어업자/회장	 심갑보(13기) 삼익(MG)/부회장	 김인규(16기) 유동상사/대표이사	 김성민(77기) 최고경영자과정/대표이사	 고시목(18기) 한국금속/대표이사	 윤영석(10기) 우산중공업/부회장	 황경로(11기) 한국금속/대표이사	 이영숙(13기) 한·멕시코친선협회/회장	 김승연(19기) 재능교육/대표이사	 김학연(21기) 재능교육/대표이사
 류한섭(25기) 한국농어업자/회장	 박찬범(2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도동환(2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정관도(2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윤석규(27기) 이온화학/대표이사	 홍완기(27기) 이온화학/대표이사	 박영관(28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동근(29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전수신(29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조양호(29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서석홍(30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국묵(30기) POSCO/대표이사	 박동배(30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조시연(3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인경(3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대봉(3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심계진(3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신영준(37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장신(37기) 이온화학/대표이사	 김광석(38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최재형(38기) 이온화학/대표이사	 박세환(39기) 이온화학/대표이사	 박준연(40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봉훈(40기) 이온화학/대표이사	 변정수(41기) 이온화학/대표이사	 한규범(42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조성남(4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정훈(4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원우(49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원도(50기) 이온화학/대표이사
 김형진(51기) 이온화학/대표이사	 박재길(51기) 이온화학/대표이사	 김정선(52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범우(52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채연(54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신훈(5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기태(5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최한연(5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정관훈(57기) 이온화학/대표이사	 고호곤(58기) 이온화학/대표이사

감 사

 이병재(19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신한수(4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정관훈(40기) 이온화학/대표이사
---------------------------	---------------------------	---------------------------

총간사장

 한정삼(3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강봉희(36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정석현(44기) 이온화학/대표이사
---------------------------	---------------------------	---------------------------

집행간사

 조은상(4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심개두(47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최규준(52기) 이온화학/대표이사	 박선호(54기) 이온화학/대표이사	 이관재(55기) 이온화학/대표이사
---------------------------	---------------------------	---------------------------	---------------------------	---------------------------

AMP 중동창회 각기별 임원진

1	회장	간사	장	양성욱	한국유아사상사(주)	대표이사 회장	32	회수	석부	회장	이진호	인선기업(주)	대표이사
2	수석부회장	간사	장	유재홍	한국인생연구원	대표이사 회장	33	회수	석부	회장	박순형	KSO(주)	대표이사
3	회수	석부	회장	최국영	주대경술부선	대표이사 부회장	34	회수	석부	회장	진국윤	주주은리터스	대표이사
4	회수	석부	회장	심갑보	삼익(LMS)사	대표이사 부회장	35	회수	석부	회장	이봉근	(주)서희건설	대표이사
5	수석부회장	간사	장	태석배	동화산업(주)	대표이사	36	회수	석부	회장	김종섭	(주)스피코	대표이사
6	회수	석부	회장	박달복	성인농산물	대표이사	37	회수	석부	회장	서영수	주한영인	대표이사
7	회수	석부	회장	류중근	중앙방수기업(주)	대표이사	38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건일산업(주)	대표이사
8	회수	석부	회장	공대서	주대영테크시스템	대표이사	39	회수	석부	회장	이인정	(사)대한신화연맹 (주)대인	대표이사
9	회수	석부	회장	김성규	주경남오직	대표이사	40	회수	석부	회장	임복집	변신주택건설(주)	대표이사
10	회수	석부	회장	김철환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1	회수	석부	회장	심계천	주대인	대표이사
11	회수	석부	회장	김민규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2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2	회수	석부	회장	홍광철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3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3	회수	석부	회장	김성민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4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4	회수	석부	회장	정재성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5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5	회수	석부	회장	고시목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6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6	회수	석부	회장	이상현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7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7	회수	석부	회장	이철우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8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8	회수	석부	회장	박유재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49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19	회수	석부	회장	김진섭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0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0	회수	석부	회장	김재신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1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1	회수	석부	회장	김성수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2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2	회수	석부	회장	김진섭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3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3	회수	석부	회장	김재신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4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4	회수	석부	회장	김성수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5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5	회수	석부	회장	김진섭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6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6	회수	석부	회장	김재신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7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7	회수	석부	회장	김성수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8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8	회수	석부	회장	김진섭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59	회수	석부	회장	김정호	주대인	대표이사
29	회수	석부	회장	김재신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30	회수	석부	회장	김성수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31	회수	석부	회장	김진섭	주대영정보백화점	대표이사							

동문기자 취재수첩

북한 동포들의 눈망을 떠올리면 ...

지난 1월 중순 1년 빈만에 다시 북한방을 밟을 기회가 왔다. 2003년 6월 남북 해와학사 학술회의 취재차 평양에 갔던 이후 처음으로 KBS가 북측과의 방송교류차 벌이던 협상에 보도본부 대표로 참석한 것이다. 협상은 개성에서 사흘간 출퇴근 협상으로 열렸다. 금강산과 평양, 개성, 신포 등 10여 차례 북한을 다녀왔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남북관계가 풀리기 전 도로 전방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한가운데로 시커먼 아스팔트 도로가 뚫렸고 풀숲에 가로 아스라하게 보이던 찌그러지고 녹슨 가판차를 눈앞에 두고 나는 기분은 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감상보다 더 마음을 잡아끈 것은 역시 변절한 나무 한 그루 남아 있지 않은 활벗은 산하였고 그 추운 날 그 민둥산을 바라보고 있는 북녘의 동포였다. 여기 저기 때때로 좋은 남녘의 풍광이 산을 허물고 흩날려 지어 실어주는 개성공단의 건설 풍운소리로 약화된 해문제로 감동으로만 다가오지 못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개성시내를 돌면서 만난 많은 개성시민들의 활짝진 모습과 허탈없는 이슬범거림은 체제의 동력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를 웅변하고도 남았다. 특히 북한에

서 만나는 보통의 아이들은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한다. 이번이 개성시내에서 스치듯 지나며 만난 열 두살 정도 때 보이는 아이는 아직도 가슴과 내 마음속을 내뿜는 맘을 휘저어 놓곤 한다. 며칠은 감지 않은 것 같은 밤송이 머리. 요즘 내 아이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터서 밟고스래한 얼굴, 그리고 비스듬히 턱을 돌려 우리를 보는 그 아이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사그라들고 있었다.

지난 2002년 9월 추석을 계기로 남악이 평양에서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을 가진 적이 있었다. 당시 또 중요한 행사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착공식이었다. KBS에 단독으로 공개된 개성현장을 鄭仁錫 기자와 함께 취재할 기회가 주어졌다. 벌써 3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그 현장을 잊기 어려운 것은 개성역에서 있었던 축하 행사와 철도가 끊어진 현장에서 있었던 발파식에서 마주친 북한 동포들의 눈망을 때문이다. 특히 발파식에 나온, 물론 동원됐지만, 60은 넘는 북한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왜 보이는 아이들의 눈빛 때문이다.

환호하는 그들의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손은 내일만 그날 마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난 전혀 그러지 못했고 그런 맘도 가지질 못했다. 그들의 환호는

희열이 아닌 듯 했고 오히려 모를 파관함과 체내하된 경계심과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는 듯한 묘한 얼굴들, 눈빛들.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두렵거리는 듯한 아이들의 외면하는 모습에서 나도 서막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를 한 개성시 인위위원회의 담당



孫 琄 洙

(정년83-90)

KBS 외교연락처장 기자

한 발언은 그의 첫인상이었지 나머지 '인민'들은 사실 입을 가리지 못한 채 북한의 현실이었다. 그들의 허름한 차림에서, 그늘진 얼굴에서 삼의 고뇌와 활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었던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이 이방인이 참전한 자리에서 그들의 불만을 함디라라도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취재팀은 '웃발 좋은' 북측 당국의 특별 인사를 받으며, 경계를 있는 대로 울리며 산악로 길을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며 행행 달려 다시 개성 지방산 역관으로 돌아왔지만 폭과 행사에 동원된 북측의 인민들은 그 먼지를 다 마셔가며 특히 4킬로미터는 되는 거리를 걸어서 되돌아 갔다. 그들은 놀아가는 무리 속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

필자가 만난 현장의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힘있는 사람들이었다. 당국자, 세관원, 군인, 안내원 등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들이었다. 남측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안내원들도 사실은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이다. 웬만하면 김일성대 출신이고 김형직 사범대, 김책 공대, 국제대 등을 나온 자들이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애간장이 짝이 있지만 이런 엘리트들이 남측 방문객을 안내하고 통째로 데 리를 끌고 있으니 체제발전에 제대로 쓸 리가 있겠는가. 그런 머라들이 연구실에서, 생산 현장에서 흠을 쏟아와, 그런 정성사화로 돌아가 북한에 미래가 있다. 이를 체제 유지 알뜰꾼의 눈빛은 일반 인민들에 비해 형형하게 살아 있지만 감시와 통제에 위한 것에 머무른다면 북한의 미래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

파격적인 원탁 회의와 남북 장관급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 남북관계, 지금은 정말 해문제를 푸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이후를 조용히 깊이 준비해야 한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취재원 '황우석'에 대한 두 가지 단상

두말 할 것 없이 기자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는 기사를 쓰는 것.

하지만 필자에게 기사작성을 포기하고 다른 기자들의 기사작성자가 되. '배려' 받은 등 '반(反)기자적 행동'을 한 것이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화가 있다.

최근 서울대 黃禹錫교수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결과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만방에 알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을 때 필자의 머리 속에는 안도감이 먼저 스쳐 지나갔다. '적어도 뛰어난 과학자의 일생을 망치는 일은 용케 회했구나'라는 생각에서다.

필자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1년 가까이 서울대 출입기자로서 黃교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당시 黃교수는 복제세포 영웅임을 탄생시킨 유전공학자로 널리 알려진 '스타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 호랑이 복제 연구 등 기발한 연구활동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서울대 총장보다 더 비중 있는 인물로 간주될 정도였다.

黃교수의 대(對) 언론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지난 2001년 2월, 공우병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 인류의 식량을 위협하고 있던 어느 날 필자는 黃교수를 만나 공우병 대책에 대해 취재를 한 바 있다. 실험적 차림으로 필자를 맞이한 黃교수는 "앞으로

3~5년 안에 공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가 탄생하는 등 공우병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공우병에 관해서는 소의 유전자로 '프리온'이라는 특이단백질이 확인됐는데, 유전자조작을 통해 저항성을 갖게 한 뒤 유전자를 소의 체세포에 주입해 배양, 이 세포로 수소를 양식을 복제해 2세를 넣으면 선천적으로 공우병에 저항성을 가진 송아지가 탄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설일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黃禹錫교수가 말했다"라는 사실이 유일했다.

당시 공우병에 대한 관심과 열거가 워낙 컸던 터라 필자는 '황우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믿고 이를 기사화 했고 사회적으로 적잖은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黃교수는 지난 2003년 12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우병 대소소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다.

黃교수의 연구활동에 엄청난 자금을 조달한 한 일도 있었다.

2000년 어느 초가를 날, 黃교수는 교수로서 또 연구자로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일이 있다. 평소 신중하고 조리 있는 말솜씨를 보여온 黃교수가 난데없이 성화문 발

언 논란에 휩싸였던 것이다. 黃교수가 서울대 자연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유전공학 특강 중 복제양 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돌리'라는 이름은 미국의 유쾌해 여가수 돌리 파튼(Dolly Parton)에게서 따온 것이라며 잠시 여담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몇몇 여학생들이 黃교수 발언으로 수치를 당했다고 서울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 강의를 내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金 炳 洙

(출생87-91)

연남뉴스 정치부 기자

黃교수는 "오류 수습시간이어서 학생들의 용음을 주기 위해 잠시 여담을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여쭙해하며 해명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필자를 비롯해 당시 몇몇 기자들도 이 같

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기사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연시간이었고, 黃교수의 발언이 교의성을 가진 게 아니라는 黃교수 해명을 작금 반영하더라도 기사화할 경우 '후폭풍'이 일어날까 잠시 여담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대학이 분위기로는 실체적 진실과 상반되는 '성희롱'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과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만 문에 기사화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회사에도 자간의 사정을 설명하며 기사화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다행히 타사의 동료, 후배기자들도 대체로 이에 호응해줬다.

일마 전 여의도에서 만난 한 서울대 교수는 "술기자와 당시 출입기자들이 오늘의 '황우석'을 만든거야"하면서 "黃교수에게도 그 때 일이 큰 교훈이 있을 걸"이라고 말하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당시 그 일은 필자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됐다. 매일매일 기사를 위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진정한 기자정신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전달하는 차이를 넘어 단순한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

이해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Pride of Korea)'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한국의 대표 과학자가 된 黃교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화제의 인물

SK커뮤니케이션즈 俞賢午사장

싸이월드 한달 페이지뷰 2백억회 넘어

보고서 단순화·복잡 자율화로 창의력 북돋워

"우리의 목표는 5년 안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총로 SK빌딩에서 만난 SK커뮤니케이션즈 俞賢午(사회78~84)사장은 싸이월드(www.cyworld.com)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내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곧 일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까지 미국, 유럽시장에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서비스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욕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통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무선 연계서비스, 그동안 싸이월드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 일찍인 싸이월드들을 세계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행태의 새로운 관문으로 자리잡은 싸이월드.俞사장 취임 당시 6백만명이던 회원은 6월 1일 현재 1천4백만명으로 늘었고 한달 페이지뷰는 2백억회에 달한다. 인터넷 포털업체의 절대강자였던 다음(www.daum.net)을 따라잡은 지는 벌써 오래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젊은이들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중요 뉴스의 정보 제공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필수 북로그로 인식돼 미니홈피가 없는 의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대통령 취임식이 돌고 있는 高建(정치56~60)前국무총리로 홈페이지(www.cyworld.com/letsgo)를 개설해 관심을 모은바 있다.

俞사장은 싸이월드의 성공 비결을 혁신



적인 서비스에서 찾는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그룹워드로 이뤄지던 사이버 분위기를 개인 위주로 바꾸는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등을 통한 그룹 활동은 10%의 적극적인 회원과 90% 방관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싸이홈피를 통해 누구나 적극적인 주체가 된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만들기가 어렵고 만들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재미가 없었죠. 그런 단점을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해결해 준 것입니다."

俞사장 자신도 미니홈피(www.cyworld.com/nateplus)를 1년 6개월째 운영중이다. 매일 아침 8시 20분부터 9시까지 게시간에 경영 단상, 생활 일기 등을 올리거나 회원들이 남긴 글에 답글을 달아준다.

사진첩을 클릭하면 최전방 GP에서 근무하던 군 시절 모습, 유학 시절 대형 트레일

러를 끌고 이사하던 모습,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 일상의 풍경이 펼쳐진다.俞사장 홈페이지 하루 1백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1촌(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완재하고 1촌 공개 내용을 볼 수 있는 관계) 숫자만 해도 4백명이 넘는다.

"저 스스로 미니홈피를 운영하면서 불편한 점을 파악하게 되고 직원, 가족, 친구, 고객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1촌을 맺은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신경 쓰지는 못하지만 생일인만큼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俞사장이 싸이월드와 인연을 맺은 것은 SK텔레콤 인터넷전략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싸이월드의 인수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해 3월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싸이월드와의 본격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접속에 문제가 많았던 싸이월드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전문적인 투자와 네이트닷컴, 네이트온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네이트닷컴(www.nate.com)과 네이트온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 국내최고의 지위를 확보했다. 유무선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네이트닷컴은 웹포털서비스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네이트온은 MSN에선저를 제치고 내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가 됐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처음 흑자를 냈고 올해 2천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빠른 성장에 대해俞사장은 직원들의 다양성을 첫 번째로 손꼽았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몇 번의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면서 또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인데,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이러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것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의 다양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俞사장의 자유로운 경영방식이다. 사

장 취임후 직원들에게 형식에 얽매지 말라고 주문했다. 사장실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들르도록 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는 직원들과의 테라임으로 정했다.

모든 보고서는 1페이지로 줄여 핵심 아이디어만 한 장으로 요약해 발표하도록 했다. 복장에 대한 규제도 없다. 창의력만 붙을 수 있다면 구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선전경영상 인터넷 기업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생방송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데, CEO가 일반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해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俞사장은 대학시절부터 회고대표, 사회대 대의위원장, 사회대 학보인 사회대신문 등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회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등학교 시절 읽었던 사르트르의 글이 개인의 이해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최근 싸이월드에 개설한 '사이좋은 세상'(cytogether.cyworld.com)은 이러한俞사장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코너이다. '사이좋은 세상'은 이곳에 참여한 단체들의 봉사활동을 알리고 싸이월드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생방송 온라인 대화 창구다. 현재 1백여 개의 봉사단체와 수만명의 1촌 봉사대가 만나 따뜻한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 동문들도 이 코너를 방문해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제기했던 서울대 폐지본도 기록관을 누리면서 배부에 소홀했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울대를 육하는 사람들을 잊히기에 앞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문들이 솔선수범 해주길 바랍니다." (南)

건강을 지켜줍니다

속보·수중 걷기로 치매 예방 효과

보통 'Fitness'라고 하면 신체 강화 및 몸매 기구기와 연관된 'Physical fitness'를 생각하지만 최근 해외에서는 'Physical fitness'와 대별되는 'Mental fitness'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Mental fitness'의 광의의 개념에는 성격 분석과 이해를 통한 사회 적응력 강화까지 포함되나 협의의 개념은 기억력 등의 뇌 인지 기능을 상승시키거나 노화에 따른 감퇴를 예방하는 것이다.

최근 노화성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라 불리는 기억력 변화의 한 종류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노화성인지장애증은 치매와 정상적인 노화 기억감퇴 모두와 구분된다. 노화성인지장애증은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기억력 문제를 보이나 치매에서 흔한 주의력, 언어, 그리고 의식 수준 등에 있어서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MCI 군이 치매로 가는 전환율은 연 10~15%에 이르고 3~4년 내에 50% 정도가 치매로 전환되는 고위험 군이다. 10년 안에는 대략 80% 이상이 치매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다.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핵심관리대상인 것이다.

치매 예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치매를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이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은 치매 특히 혈관성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들이며 대표적인 생활습관 질환들이다. 흡연, 과음도 위험인자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일찍 하이며 병이나 혈관성치매에 덜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권해지기도 한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사회생활,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尹大煥

(의화99-93)

도교 병원 강남센터

신경정신과 교수

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Mental fitness' 측면에서 운동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운동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연구 결과는 보고되고 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루 40~60분 '약간 힘들다' 정도의 강도가 적당하다. 속보, 조깅, 수영, 물에서 걷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권장되는 운동이다.

(연락처: 2270-0042)

나의 건강법

나만의 쉬운 요가 개발 건강유지

金 許 男 (행정49-52)신라중년연합회 총재

필자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60세를 지나고 나서이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축구를 즐겨하며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몸무게를 주체할 수 없게 됐다. 한량이 지난 나이에 키 1백65cm, 80kg의 몸무게는 큰 부담이었다.

주변에서 '젊음이 좋다, 조깅이 좋다'고 해서 따라 했는데 오히려 허리, 무릎에 통증만 유발시켰다. 결국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어려움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운동이란 체중, 연령,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자기 몸에 맞는 종목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효과를 보았다고 무조건 따라 하다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개월 정도 지나도 차도가 없고 움직이면 더 아파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엑스레이 상에는 아무 이상도 발견할 수 없다"며 "노화돼 나타나는 자연병이니 집에 가서 조리하라"는 말만 들었다. 그러도 걱정이 돼 또 다시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한 후 물리치료를 권유하기에 병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매일 아침 15분씩 2주간 간단한 운동을 하고 나니 무릎 놀리는 것이 꽤 부드러워졌다.

그 당시 치료할 때 "인간의 노쇠현상은 관절에서부터 온다"는 의사의 말이 기억났다.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각 관절에 연골이 부족해 뼈와 뼈가 부딪혀 염증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몸 전체의 관절을 수시로 움직이면 움직임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되살아나서 관절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예기였다.

그 말을 연상하면서 내 나름대로 발판에서 손끝까지 전신의 관절을 매일 한 시간 정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김해법 요가법'을 고안해 오늘날까지 실천해 오면서 86세의 나이에도 신경통, 관절염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요가는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이다. 따라서 필자가 고안한 요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려운 자세의 요가가 아니다. 오히려 건강 도수체조에 가까운데 남녀노소 누구나 실내외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작을 만들었다. 김



해남 요가의 요체는 전신의 뼈다리를 끌고부 움직여 연골이 굳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작은 총 25개로 구성돼 모든 운동을 마치면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이와 함께 1일 만보 걷기를 하고 있다. 집에서 속도 2사정까지 1km, 거기서 월정소 정문까지 2km, 왕복 6km를 보폭 60cm로 매일 걷거나 그것이 어려워지면 실내에서라도 부지런히 걷는 노력을 한다.

50세 이후에는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정신력이 감퇴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소심해져서 매사에 소극적이며 급진적으로 노쇠하기 쉽다. 이때 활동을 적게 한다면 그만큼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노화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충분한 영양 섭취와 알맞은 운동으로 지속적인 체력관리를 해야한다.

(연락처: 363-0406)

서울대 가족 故 秋月映 前경남교·부산교 교장

세 아들과 두 사위 모두 CEO 지내

“물욕 멀리, 정신적 가치 추구를 생활신조로”

여는 집에 들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멋진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뎡하게 찍은 사진, 자녀의 결혼식에서 사위나 며느리를 맞이하는 사진, 특별한 기념일에 3대가 다 함께 모여 찍은大家族 사진 등 하나같이 그 속에 추억이 서려있고, 가족애가 묻어난다.

지난해 8월 21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초로 개방형 학교 도서관을 설립한 부산 교육계의泰斗이자 7남 2녀를 모두 출중하게 키운 故 秋月映(경성사범25졸) 동문의 백수를 기념하는 ‘秋月 가족모임’이 있었다.

부인 崔福金(여사, 7남2녀의 자녀들과 그 배우자, 손자, 증손자들까지 큰 볼륨을 가득 채운 ‘秋月 가족모임’은 무더운 여름날씨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앙상불을 이루듯 4대가 하나가 되어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던 秋月映동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념사진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가족들의 곁을 떠났다.

부인 崔福金을 대신해 5남 秋智勳(화학공학59·64)동문은 당시의 모임을 이끄는 회고했다.

“먼저 미국에 있는 손자들이 사탕스런 할아버지의 백수를 축하하고 싶어서 같은 날 휴가를 받아; 고향인 부산에서 모이기로 하고 이를 알리 왔습니다. 그 제안을 삼촌들이 받아들여 아버지 슬하의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고, 정말 기적 같고 꿈같은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秋月映동문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경남교·부산교·부산교



앞줄 좌로부터 네 번째 故 秋月映동문. 둘째 줄 좌로부터 두 번째 朴錫炫·秋俊錫·趙文濟·秋智勳 동문. 연줄 秋智勳동문

를 명문교로 성장시켰으며, 교장으로 부임하는 학교마다 새 교사를 짓는 등 작심 발로 뛰는 ‘건설 교장’을 지체하며 열정을 바쳤다. 특히 경남교 교장으로 있던 지난 1957년, 당시로는 획기적이었던 개방형 학교 도서관을 설립해 “도서관이 얼마까지 남아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교사가 화성을 믿지 못하면 누군 믿겠느냐”는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며 국내 학교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새 지평을 열었다.

“부친께서는 암하셨습니다만 인지하셨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몇 배를 질문하실 정도로 호기심이 많으셨으며, 자녀들의 예기에 귀 기울이셨고, 생활은 넉넉지 못했으나, 사랑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는 부친을 보면서 형제들이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져 있는 일을 하시는 모습에 저희 아홉 남매도 나름대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니 나들 큰 딸 없이 평탄하게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아들 가운데 秋智勳동문을 비롯해 6

지금의 CS칼텍스장유, CS건설 등 초기 멤버로 활약한 秋智勳동문은 LG그룹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경영인으로서 활동했으며, 이후 약 10년간 삼성그룹의 사장·부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모교에서는 30년이 다 돼 가는 59학번 월매골프모임과 출신 단체도 다르고 출신지역도 다르지만 축구교우로 40여 년을 세운 동기모임인 ‘童物會’를 비롯해 그동안 秋智勳동문이 관여했던 분야의 크고 작은 모임에 일일이 참석하며 퇴임 후에도 한국공학한림원 최고경영인협의회 운영위원장, 이관산업 사장이자, 한국 윗손와이어드 고문 등으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족 중 유일하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자의 길을 걸은 6남 秋俊錫동문은 30여 년간 경제부처에서 산업과 무역에 대한 정책입안·행정업무 등을 수행해온 ‘산업정책전문가’, 중소기업정책을 지낸 뒤 지난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와이셔츠를 해리로 수출하는 봉제봉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秋俊錫동문은 그의 겸손하고도 의리 있는 성품 때문에 45세의 젊은 나이에 대우중공업 CEO를 맡아 세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한국외아즈베 대표를 거쳐 현재 파라디시 사장으로서 역동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거쳐 삼성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큰사위 趙文濟동문은 가족끼리 조금 소원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메이커’. 무림제지 부회장을 거쳐 현재 삼구그룹 부회장으로 최근 설립한 삼구와인의 운영을 직접 맡고 있다. 趙文濟동문은 秋智勳동문과 대학 동기이고, 둘째 사위 秋智勳동문은 秋俊錫동문과 대학 입학동기라는 인연으로 가족 단합에 기여하고 있다.

매 2년마다 갖기로 한 ‘秋月 가족모임’을 내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예정이라고 말하는 秋智勳동문은 “부친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는 평소의 모습을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년엔 가족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 아버지의 모습을 기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表)

秋月映동문의 서울대 가족

- | | |
|----|----------------|
| 5남 | 秋智勳(화학공학59-64) |
| 6남 | 秋俊錫(경제67-71) |
| 7남 | 秋浩錫(경영69-73) |
| 사위 | 趙文濟(경제59-65) |
| | 朴錫炫(섬유67-75) |

남 秋俊錫(경제67-71 부산항만공사 사장) 동문, 7남 秋浩錫(경영69-73 파라디시 사장) 동문 그리고 큰사위 趙文濟(경제59-65 삼구와인 부회장) 동문과 둘째 사위 朴錫炫(섬유67-75 前이수제리믹 상무) 동문이 모교를 졸업했으며, 국내 굴지의 기업 CEO를 역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모교 소식



웅진코웨이 'R&D센터' 약정 15년간 2백60억원 지원 받아

모교와 웅진코웨이(사장 朴龍鶴)는 지난 6월 14일 산학합동 연구개발을 위한 '웅진R&D센터 설립 약정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관악캠퍼스 호암회수화장관 오복영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鄭道植총장과 웅진그룹 尹錫金(AMP 27기) 회장(사진 앞줄 좌)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모교에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15년간 산학연구비를 지원한다.

웅진R&D센터가 건립될 모교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과 모교가 산학연계 연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2인3석9학4명 부지에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학연계 연구단지, 이미 SK, LG가 입주해 있다.

모교와 웅진코웨이는 이 연구공원에 약 3천평 규모의 웅진R&D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분석 계측기 등 첨단 설비를 갖춘 예정이다. 웅진R&D센터가 완공되는 2007년, 서울·인천에 분산되어 있는 웅진코웨이 연구소를 통합·이전하여 물, 공기, 건강과 관련된 환경 기술 분야, 그리고 새로운 가전 아이디어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 朴龍鶴사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와 이들이 만들어 내는 기술에 달렸다"며 "이번 서울대 산학협력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R&D센터를 건립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을 유치하여 세계 제일의 기술을 보유한 생활환경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CJ 인터내셔널센터' 건립 협약 34억5천 들어 내년 5월 완공

모교(총장 鄭道植)가 CJ그룹과 외국인학생지원센터인 'CJ인터내셔널센터'를 교내 경영에 인건에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모교 鄭道植총장은 지난 6월 9일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CJ그룹 徐京植(법학57 61번 회회장)회장(사진 앞줄 좌)과 'CJ인터내셔널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CJ그룹은 올해 9월 시작해 2006년 5월 완공 예정인 인터내셔널센터 건립에 비용 3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약 7백평 부지에 들어서는 이

센터는 4백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One-stop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상담센터 운영 및 진로교육 공간, 동아리관 등 생활편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제적 학술 교류 행사 개최, 해외대학 교류 발전 등 국제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CJ그룹은 지난 2002년 모교에 여학원 건물 비용 20여억원을 출연하는 등 모교의 국제화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지원하고 있다.

전산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 최고 슈퍼컴퓨터 가동

국내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가 모교 관악캠퍼스 중앙전산원에 설치,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모교 중앙전산원(원장 朴應雨)은 지난 6월 20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슈퍼컴퓨터 3호기'의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朴應雨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대의 두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계로 향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 중앙전산원이며, 앞으로 정보와 마인드를 확대시키고 슈퍼컴퓨터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서울대가 세계일류대학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道植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는 누가 먼저 정보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좌우된다"고 말하고 "이번 슈퍼컴퓨터 도입이 정보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연구자간에 집적인 개념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후 슈퍼컴퓨터 도입 및 중앙전산원 발전에 공헌한 교내외 인사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전달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그동안 모교는 1995년 슈퍼컴퓨터 1호기를, 2000년에 2호기를 들여왔는데 이번에 2004년 12월

부터 예산 27억3천만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3호기의 구축사업을 시작해 시스템구축과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정식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리눅스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컴퓨터 서버 여러 대를 연결해 만든 이 슈퍼컴퓨터는 IBM본사로



부터 부품을 들여온 지난 12월부터 직원 5명이 밤낮 없이 매달려 설치에만 무려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컴퓨터 설치이후에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데 세 달이 걸렸다.

이렇게 완성된 슈퍼컴퓨터 3호기는 지난 3월 실시한 성능테스트에서 실효치가 약 5.148테라플롭

스(Tflops: 1초에 사칙연산이 5조번 가능한 속도)로 나와 1호기에 비해 성능이 약 8백50배 정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일 컴퓨터로는 세계 슈퍼컴퓨터 중 50위권이며, 아시아 교묘기관이 보유한 컴퓨터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모교는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을 계기로 효과적인 컴퓨터 활용을 위해 교내외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슈퍼컴퓨터 운영위원회'(위원장 朴應雨)도 구성했

다. 운영위에서는 앞으로 해외 연구소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고성능 컴퓨팅 e-learning 콘텐츠를 제공해 슈퍼컴퓨터 사용자들을 상시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해 외부에서도 모교의 슈퍼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컴퓨터 자원을 공유기도 했다.

음악대학

첫 여자학장 申秀貞교수



음악대학에 사상 첫 여성 학장이 탄생했다. 음대는 최근 기악과 申秀貞(기악99-63)교수(사진)를 9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학장으로 선출했다.

申교수는 서울예고와 모교 음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바디대 음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뮌헨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 심사위원, 경원대 음대 학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중앙도서관

'권장도서' 전용코너 마련

모교 중앙도서관(관장 許善鍾)이 4층 열람실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다독서 박람공간으로 바뀌었다. 특히 50여 석이 갖춰진 기초정보자습실에는 학생들의 교전 열기를 북돋기 위해 '서울대 권장도서 1백선' 전용코너가 마련됐다.

지구원형학부 任明信교수

국내 최초 '퀘이사' 발견

모교 지구원형학과부 任明信교수님이 국내 최초로 '퀘이사(Quasar)'(밝게 빛나는 초대형 블랙홀)를 발견했다.任교수님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수만 개의 퀘이사 중 여섯 번째로 밝은 희귀한 퀘이사들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任교수님이 지난 4월 경북 영천군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을 이용해 발견한 퀘이사는 국내에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멀리 떨어진 12억광년 거리에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퀘이사 중심부에 태양 질량의 1억배가 되는 초대형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任교수는 "사람도 빛은 곳에서 빠져 감지해서 구분할 수 있듯이 이번에 발견된 밝은 퀘이사를 관측해야 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퀘이사의 크기는 태양질량의 수십억배에 이르는 초대형 블랙홀로, 인으로 물질들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에너지로 빛을 내는 매우 작은 특이천체를 의미한다.

자연과학대학

7회 연구·교육상 시상



자연과학대학(학장 吳世正)은 지난 6월 14일 제7회 연구상 수상자에 물리학부 姜善南(물리79 83)교수(사진 좌), 교육학 수장자에 최희부 金美文(화학75-80)교수를 선정, 수여했다.

연구상을 수상한姜교수의 연구팀은 세계적인 복제된 네트워크 연구그룹으로 성장해 모교의 위상을 높였으며, 학제간 연구를 이끌어 국내의 생물학·사회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姜교수는 중·고교 학생 및 일반대생에게 자연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학 및 자연과학의 교양에 남다른 열과 성의를 가지고 헌신해 오고 있다. (李)



좌로부터 孫賢烈대법관, 金美蘭대법관, 李鎭仁부총장, 成樂實학장, 鄭雲燾총장, 丁海島동창회장, 孫一機상임부회장, 朴榮姬여성회장

법과대학

새 단장한 법학관 준공식 가져

법과대학(학장 成樂實) 법학관(15동)이 지난 6월 10일 새 단장을 해 였습니다. 그동안 법학관은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실이 발생해 빚빡이 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04년 12월 대학본부와 법대 동문 등의 후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식전 행사로 품종매 공연이 열렸으며 成樂實장은 인사말에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

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내린 비는 건물 외 방수성을 테스트한 것이 돼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鄭雲燾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나라 법과 법학 발전의 요람인 15동 법학관이 2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한 뒤로 오늘 이렇게 현대적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법학관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이 새 건물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꿈과 뜻이 마음껏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鄭雲燾장은 앞으로 '국산법학 도서관'의 전면 증·개축을 통해 법학관 15동 일대를 법대 건물 복합단지로 형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대는 시공을 성공리 마쳐준 김리회사 및 시공회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화려한 불꽃과 함께 열린 테이프 커팅식과 만찬, 법학관 시설 관광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보고 鄭雲燾총장, 李鎭仁부총장, 成樂實학장을 비롯하여 내빈으로는 본회 孫一機상임부회장, 金鍾善은성의원, 법대동창회 丁海島회장, 본회 孫宗禎부회장(그로수 회장), 金鍾求·康順實 前임무부 장관, 법전합동법률사무소 李英俊교문 변호사, 법대동창회 朴榮姬여성동문회장, 대법원 孫錫烈·金美蘭·대법관, 김·장법률사무소 朱成民변호사 등 교내·외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좌로부터 두 번째 許永燾회장, 李容璽사장, 李起東교수, 韓民九학장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은 지난 6월 27일 보고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 수상자로 신암문화재단 鄭植主(화학공학48-52)이사장, 복십자 許永燾(극속공학60-64)회장, KT 李容璽(전자공학60-64)사장, 미국 일리노이대 항공우주공학과 李起東(조선항공63-67)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공대는 93년부터 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하거나 뛰어난 학문적 성취 및 사회봉사로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을 선정,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을 수여해 왔다.

이날 병행 가졌던 참석하지 못한 鄭植主동문은 신암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 및 교육연구비 지원사업 등을 해왔으며, 공대 엔지니어하우스, 신암예술정보관 건립에 공헌하는 등 모교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許永燾동문은 '목양생명공학연구소' '한국철우재단' 등을 설립해 우리 나라 생명공학기술 발전과 생명공학산업육성하는데 기여했다. 李容璽동문은 한국통신프리텔·KT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나라 IT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李起東동문은 각종 저명 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우수한 논문을 발표, 항공기개발 공학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후)

영자誌 'Quill' 창간

제학생 힘모아 발행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영자잡지가 발행됐다. 교내 영자신문 동아리 'Quill'은 지난 6월 1일 모교 첫 영자잡지 'The SNU Quill' 8천부를 발행해 학생회관, 외국인 기숙사 등 학내 10여 곳에 배포했다.

모두 32페이지 분량의 창간호는 커버스토리로 '강박증과 공포증'을 다뤘다.

영어영문학과 申光鉉(영문8084)교수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학생 기자들로 구성된 이 영자지 동아리는 지난 2월부터 발행을 준비해왔으며, 'The SNU Quill'에서 'Quill'은 '깃털펜'이라는 뜻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생명윤리위' 설립 추진

모교는 인간대상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생명윤리위원회'를 대학본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내 대학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모교가 처음이다. 최근 모교의 이 같은 방침은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실험에 따른 윤리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도덕성과 윤리적 인정성을 확보하고 생명윤리에 관한 시비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알림

제1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8월 5일까지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 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식(10월 14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하신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적격자를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5일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2, 팩스: 889-7489)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경

수상

▲**金景泰**(사회교육49-53 前무학 여고 교장·한국 수필문화가협회 이사)=최근 한국수필문화가협회가 수여하는 제15회 수필문

학상 수상.

▲**李惠媛**(의학61을 미국 토머스 제퍼슨 의대 교수)=지난 5월 31일 이태여고에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상.

▲**李秉根**(국문59-63 前모교 국어 국문학과 교수)=지난 6월 9일 서울 동송동 일석기념관에서—石李秉根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

정한 제3회 인식 국어학상 수상.

▲**朴英珠**(경제39-63 이진산업 회장)=지난 6월 11일 세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뉴욕 일리노이 문화 재단이 수여하는

제14회 몽블랑예술후원자상 수상.

▲**陳政一**(의학60-64 고려대 교수)=최근 교본자 화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내 교수로는 처음으로 2005년 플로리(Flory)상 수상자에 선정.

▲**崔鍾圭**(교대원68층 중앙대 교수·한국미대국문 학회장)=지난 6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4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식에서 30여 년간 교육, 연구, 국가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근정포장 수상.

▲**朴在甲**(의학67-73 국립암센터 원장)=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금연 공로상 수상.

▲**朴鍾圭**(응용미술69-73 폴리곤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소설가)=지난 6월 9일 서울 출판문화관에서 단편소설 '아스팔트'로 제

10회 담미문학상 소설부문 본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林憲政**(작곡70-76 모교 작곡과 교수·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지난 6월 1일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국제적 수준의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킨 공로로 호암상(예술상) 수상.

▲**金英泰**(행정71-75 대성그룹 회장)=지난 6월 22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기스안전공사 주최로 열린 제12회 가스안전축전대

회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黃鴻基**(수의학72-77 모교 수의학과 석좌교수)=지난 6월 11일 미국 휴스턴 메이어트 메디컬센터에서 미국 유전학재단연구소가 제정한 국제정로상 수상.

▲**金奎源**(제약학72-76 모교 의학과 교수)=지난 6월 1일 세계 최초로 혈관성상 단백질을 발견해 새로운 혈관성상 분자기전을 규명

한 공로로 호암상(의학상) 수상.

▲**安奎福**(조소73-7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동 예술인 대화실에서 제19회 김세종조각상 수상.

▲**方英柱**(의학73-79 모교 의대 안문구수장)=최근 경기도 68회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수상.

▲**王奎彰**(의학73-79 모교 의대 학장)=최근 경기도 69회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수상.

▲**鄭炳基**(치의학73-79 모교 치대 학장)=최근 경기도 69회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수상.

▲**李鍾姬**(비생물76-80 서울대대 교수)=지난 6월 2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05 한국 로열로—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진흥상 수상.

▲**金永美**(악적83층 울산대 교수)=지난 6월 2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05 한국 로열로—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진흥상 시상식에서 약관상 수

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金景泰**(기계공학70-74 미국 브라운대 교수)=지난 6월 1일 韓僑점 마법법칙을 확립하는 등 나노 역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암상(공학상) 수상.

공로로 명예 제주도민으로 위촉.

▲**鄭炳基**(장학58-64 前조흥은행 부장·최우수문상 수상, 장)=지난 6월 13일 방송 및 언론인 기리기제인 '이노비' 대 표이사 회장에 선임.

▲**李容璣**(전자60-64 KT 사장)=지난 6월 2일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제5대 회장에 선임.

▲**李武武**(법학60-64 前전선교통부 장관)=지난 5월 31일 학교법인 배달학원 정기이사회에서 한미대 총장에 선임.

▲**鄭炳基**(경제60-64 前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지난 6월 27일 서강대 제12대 총장에 취임.

▲**李鍾圭**(철학64-68 서강대대 교수)=지난 5월 28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에 선출.

▲**韓炳基**(경제64-68 前국회의원)=지난 6월 18일 기술산업진흥기금 제8대 이사장에 취임.

▲**李鍾圭**(행정66-70 前중견거래소 부이사장·관현대학)=지난 6월 24일 한국기업재무조개전 지원 센터 시사회회에서 제2대 부원장에 선출.

▲**鄭炳基**(경제66-70 前서울상의 부회장)=지난 6월 24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에 선임.

▲**金昊植**(금속67-71 前해양수산 부 장관)=지난 6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 임명.

▲**柳年珠**(잡사67-71 前대금보원장 이사)=최근 한국금융인전(주) 대표이사에 선임.

▲**安鍾基**(사회68-71 前부처부 차관)=지난 6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임명.

▲**尹碩敏**(경영67-71 한림대 경영대학장)=지난 5월 20일 SK아카데미에서 열린 2005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5대

회장에 선임.

▲**鄭炳基**(경영68-75 국가보훈처 차장)=지난 6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장에 임명.

▲**鄭正浩**(영어교육68-73 중앙대 교수)=최근 경북대에서 열린 한국비평이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

▲**李 哲**(사회69-88 前국회의원)=지난 6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취임.

▲**鄭炳基**(경제69-76 빌그대 사장)=지난 6월 22일 한국플러스타라사이클링협회 제2대 회장에 선출.

▲**李康源**(농경제70-74 국토농신인증권 사장)=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한국투자공사(KIC) 초대 사장에 취임.

▲**崔在德**(국어교육74졸 前전선교 불부 차관)=지난 6월 9일 한국전선산업연구원 제4대 원장에 선임.

▲**金鍾基**(경제70-74 국제신문원 상임심판장)=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세제심장에 임명.

▲**朴炳元**(법학71-75 재정경제부 차관보)=지난 6월 1일 재정경제부 차관에 임명.

▲**李昇雨**(행정71-75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에 임명.

▲**金正植**(법학72-76 前법원사무관 당 원내대표·국회의원)=지난 6월 28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

▲**黃善錫**(수의학72-77 모교 수의학과 석좌교수)=지난 6월 24일 서울 한포동플러스호텔에서 열린 최고과학자위원회 회의에서 제1회 최고과학자에 선정.

▲**柳在權**(경제73-77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

▲**金鍾泰**(경영73-78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차관보에 임명.

▲**李梅成**(경영73-77 前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지난 6월 23일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취임.

인사

▲**朴炳基**(정치50-59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지난 6월 22일 제15차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회의에서 임기 9년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재선.

▲**孫一振**(법학51일 한국일보 상임고문·경원대 겸임교수·본회 상임 부회장)=지난 6월 12일 국내 유망의 고미술·골동품 전문 교양지 '古美術'지의 회장에 취임. 새로운 편집 장면을 발족하여 잡지의 면모를 일신할 계획.

▲**金鍾基**(생물교육51-55 前인제고교 교장)=지난 6월 27일 인천 간석동 인제고교에서 학교법인 양지학원 이사장에 취임.

▲**李升煥**(행정53-58 前그리스대사·한국기스연맹 국회의원·조직위원장)=지난 6월 30일 송원국제체육진흥사무소 대표변리사에 취임.

▲**陳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15일 제주도로부터 미국여자프로그로프 경기인 'CJ나인브릿지 클래식'을 3년간 제주도에 유치한

제1회 최고과학자에 선정.

▲**柳在權**(경제73-77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

▲**金鍾泰**(경영73-78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차관보에 임명.

▲**李梅成**(경영73-77 前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지난 6월 23일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취임.



▲**南二鵬**(토목77)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주) = 지난 6월 22일 건설교통부 차관보에 임명.

▲**李在善**(치의학73-80 前대구 남구청장) = 지난 6월 28일 환경부장관에 임명.

▲**趙建奎**(토목74-78 KTF 수석부사장) = 지난 6월 22일 KTF 이사회의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趙康豪**(경제75-80 재정경제부장관(기)관) = 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국장에 임명.

▲**南重秀**(경영75-79 KTF 사장) = 지난 6월 18일 KT 제9대 사장에 내정. 8월에 취임 예정.



▲**金錫夫**(법학76-80 하나호텔컴 수석부사장) = 지난 6월 23일 두루넷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權慶雄**(행정원76-78 건설교통부 차관보) = 지난 6월 22일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임명.

▲**辛孝喆**(기계공학79출 3M 산업용 접착제(이)프루트 부사장) = 지난 6월 1일 미국 3M 산업용 비즈니스 총괄 수석부사장에 선임.

▲**金昌南**(경영78-82 성공회대 교수) = 지난 6월 22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열린 한대총동맹학회 창립준비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

▲**金秀榮**(토목80-84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국민정책비서관에 임명.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무처 사무처장 겸임.

▲**李煥仁**(경영83-90 삼선전자 사장) = 지난 5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창립회의에서 임기 1년 6개월의 의장에 선출.

▲**黃善孝**(경제84-88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지난 6월 17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에 임명.

▲**李榮泰**(AMP 25기 현대통신산업 회장·대한야구협회 회장) = 지난 6월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아시아야구 연맹(BFA)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李煥仁**(의학51-57 가련재단 회장·경원대 총장·본회 부회장) = 지난 5월 17~20일 중국 산둥대를 방문해 공동학위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원대 분교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협의.

▲**林孟浩**(불문52-57 민음사 회장·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지난 6월 23~25일 제주도 하얏트호텔에서 '세계 속의 선진교계'의 선진교 양국가, 출판이 선도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徐仙鶴**(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 = 최근 서울 국제철재아미라트대회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

▲**崔榮基**(GLP 5기 한국방송 사장) = 지난 6월 13일 3자협동회의 회장에 추대.

▲**金道雄**(법학43-47 변호사·본회 회원) = 지난 6월 23일 서울 메리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념 논문발표회 '韓國 公法理論의 새로운 展開' 분장식 개최.

▲**白樂祥**(가학46 52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청운대 초빙교수·피아니스트) = 지난 6월 5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열린 안정구(가학46-51 바이올리니스트)·등문 등과 함께 하는 피아노 실내악의 밤에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아' 등을 협연.

▲**丁奇朱**(불문47-51 前광주대 교수·AMOPA 한국협회장) = 최근 프랑스 교육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나라의 제도와 비교 논평한 저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프랑스는? 그런데 한국은...' (매경사)을 출간.

▲**李吉女**(의학51-57 가련재단 회장·경원대 총장·본회 부회장) = 지난 5월 17~20일 중국 산둥대를 방문해 공동학위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원대 분교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협의.



▲**鄭在權**(행정52-56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장) = 지난 6월 24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의실에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의 개편'이란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姜信浩**(사회55-59 인제대 명예교수) = 지난 6월 2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인민대학 인문윤리학과 연구소 주최 2008 북경윤리학회 국제포럼에 초청돼 '서울윤리학회 개관식과 한국 전통문화방법'이란 주제의 논문 발표.

▲**鄭玉玉**(가정교육66-61 한국국립중앙도서관장·명예교수) = 지난 6월 17~19일 서울 운문운현관에서 '제7회 한중장학후 기복식 고종재전' 개최.

▲**金成勳**(경영58-63 삼지대 총장·경실련 공동대표) =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徐承完**(행정58-64 한국국제연구원장) = 지난 6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재정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朴容鳳**(경제59-6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환경보전협회장·상대통령회장·본회 부회장) = 지난 6월 13~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평양홀에서 21개국 2백60개 업체(2천여 점)가 참가한 제27회 국제환경기술전 개최.

▲**安秉義**(행정60-64 한국외대 총장) = 지난 6월 23일 서울 한국외대 국제관 예경홀에서 바르셀로메오스 선교회의 세계총대주교에 계 명에 축하박사학위 수여.

▲**李芳淑**(가학61-65 연세대 교수·피아니스트) = 지난 6월 24일 서울 신문로 1가 금호아파트에서 첼리스트 李芳恩(가학67 졸 순천 앙상블 단장)·바이올리니스트 李芳姬(가학71졸 뉴욕 메네스 음대 교수)등과 함께 '李芳트리오'의 밤 개최.

▲**曹英英**(회화64-68 그로리치 화랑 대표) =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 평창동 그로리치 화랑에서 '드로잉을 통해 본 한국 현대미술 60년사 II부'를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전 개최.

▲**金英源**(물리65-69 고등과학원장) = 지난 6월 2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원 공동과학회의실에서 프랑스로부터 초청된 과학자들과 함께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在權**(행정52-56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장) = 지난 6월 24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의실에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의 개편'이란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姜信浩**(사회55-59 인제대 명예교수) = 지난 6월 2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인민대학 인문윤리학과 연구소 주최 2008 북경윤리학회 국제포럼에 초청돼 '서울윤리학회 개관식과 한국 전통문화방법'이란 주제의 논문 발표.

▲**鄭玉玉**(가정교육66-61 한국국립중앙도서관장·명예교수) = 지난 6월 17~19일 서울 운문운현관에서 '제7회 한중장학후 기복식 고종재전' 개최.

▲**金成勳**(경영58-63 삼지대 총장·경실련 공동대표) =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徐承完**(행정58-64 한국국제연구원장) = 지난 6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재정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朴容鳳**(경제59-6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환경보전협회장·상대통령회장·본회 부회장) = 지난 6월 13~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평양홀에서 21개국 2백60개 업체(2천여 점)가 참가한 제27회 국제환경기술전 개최.

▲**安秉義**(행정60-64 한국외대 총장) = 지난 6월 23일 서울 한국외대 국제관 예경홀에서 바르셀로메오스 선교회의 세계총대주교에 계 명에 축하박사학위 수여.

▲**李芳淑**(가학61-65 연세대 교수·피아니스트) = 지난 6월 24일 서울 신문로 1가 금호아파트에서 첼리스트 李芳恩(가학67 졸 순천 앙상블 단장)·바이올리니스트 李芳姬(가학71졸 뉴욕 메네스 음대 교수)등과 함께 '李芳트리오'의 밤 개최.

▲**曹英英**(회화64-68 그로리치 화랑 대표) =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 평창동 그로리치 화랑에서 '드로잉을 통해 본 한국 현대미술 60년사 II부'를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전 개최.

▲**金英源**(물리65-69 고등과학원장) = 지난 6월 2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원 공동과학회의실에서 프랑스로부터 초청된 과학자들과 함께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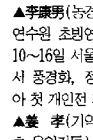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康男**(농경제61-65 한국금융연수원 초빙연구위원) = 지난 6월 10~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풍경화, 정물화 30여 점을 모아 첫 개인전 개최.

▲**姜 孝**(가학63) 세종문화예술진흥회 = 지난 6월 22일~8월 21일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리는 아스펜 음악제에서 상임연주단으로 활약하면서 7월 6일(Harris Concert Hall)과 7일(Benedict Music Tent)에 공연.

▲**李東賢**(불문64-68 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한국국립중앙도서관장·명예교수) = 지난 6월 17~18일 경북 대우대학교에서 프랑스로부터 초청된 과학자들과 함께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曹英英**(회화64-68 그로리치 화랑 대표) =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 평창동 그로리치 화랑에서 '드로잉을 통해 본 한국 현대미술 60년사 II부'를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전 개최.

▲**金英源**(물리65-69 고등과학원장) = 지난 6월 2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원 공동과학회의실에서 프랑스로부터 초청된 과학자들과 함께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吳相孝**(경제70-74 산업연구원장) = 지난 7월 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 제조업 미래 등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高聖三**(경대원72-74 중앙대 교수·한국회계정보학회) = 지난 6월 25일 중앙대 대학원에서 '회계부패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학술포럼 개최.

▲**姜大根**(신대원76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소) = 지난 6월 25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제이해교육 연구포럼' 개최.

▲**朴克沃**(가학77-81 한양대 교수·첼리스트) = 오는 7월 19일 예술의 전당 리시아일랜드에서 바흐의 첼리스트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曹英英**(회화64-68 그로리치 화랑 대표) =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 평창동 그로리치 화랑에서 '드로잉을 통해 본 한국 현대미술 60년사 II부'를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전 개최.

▲**金英源**(물리65-69 고등과학원장) = 지난 6월 2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원 공동과학회의실에서 프랑스로부터 초청된 과학자들과 함께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李煥仁**(의학83-89 인지와 원장·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6월 12일 서울 사간동 금호리시아일랜드에서 연세대 출신 의사 등과 함께 한학 4중주단 '더덕스 퍼포먼스' 첫 연주회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林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鄭善賢**(서양화96-00 예원학교 교사·미술치료사) = 지난 6월 15~28일 서울 판문동 D에 켈러 리에서 '나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 개최.

명사

박목

추억의 창

李 相 喆 (치약57·61) 리방철치교병원장

난생 처음 줄음 참으며 공부한 해부학
매월 세미나서 학문탐구의 갈증 해소

1957년 4월 1일 오후 1시, 당시에는 제15회였고 요즘으로는 57학번이 입학식을 거행한 날이다. 청명한 날씨로 문리대 운동장에서 신뜻한 교복을 차려입고 도열해 있는데 태극기와 대학기를 앞세우고 尹日壽총장님과 李方哲(치약57·61)리방철치교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어른들은 얼마나 연구한 학자가 저리도 어위셨으며 비록 좀 심하게 불어든 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필자가 속명적으로 저분들 같이 공부를 해야 하고 지리한 도합의 역모를 갖추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격정한 일도 있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가를 배운 다음, 소공동에 위치한 치과대학 강당에서 학장님, 병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소개가 있었고 신입생 자신을 소개 할 때에는 팔도 사투리가 다 튀어나왔다. 자급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날도 사실의 책을 보고는 놀라버렸다.

4월 3일 병원견학을 하는데 보통 치과



2학년 시작하기 전 일출 간 아침부터 밤까지 시체해부 실습을 하다가 어느 날이 내리 눈 날씨에서 잠깐 쉬면서 (좌로부터 두 번째 필자).

관련 원장님과 간호원 두 명이 치료하는 조그마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건물(한국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함)의 2~3층이 모두 치과병원이라

니 우선 기가 질렸으며 여가에서 3~4년 후에 환자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려오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1호인신 李春根(정형외과)은 "여러분은 이제 치과의학과 결 혼한 것과 같으며 한 번 맺은 인연은 끊어 서도 안 되겠지만 평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랑스런 한터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 말 씀은 정말 감명 깊게 가슴에 각인되어 치 과의사로서의 좌우명이 됐고, 경매대 명

예교수인 필 자도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은사님의 말 씀이라며 스 승님의 이 말씀을 또 전해 주곤 했다. 갓 입 학한 우리들 에게 두려워 면년도 호기 심 어린 과 목은 해부학 이었고 단단

成慶俊교수 님은 첫 시간에 골학, 인대학, 맥관학, 근학 등을 처음 듣는 여러 가지 chapter가 있으며 각 chapter마다 예고 없이 시험을 다시 반복 전다고 하셨다.

1학년 때 해부학과목이 시간 수나 하점 이 가장 많기도 하고 예고 없이 시험을 치 른다고 하시니 처음 접하는 학문이라 필자 는 난생 처음으로 줄음을 참아주며 공부하 는 것 같이 노력했던 학과목이기도 하다. 4년제이니라 시간이 모자라신지 3학년 이 끝날 때까지 토요일도 8시간씩 시간표 가 짜여져서 겨울에는 수업을 끝내고 7분 들고 찬란한 밤경치의 소풍을 거리로 나오 면 혼자 공부와 연구를 한 것처럼 뿌듯할 때도 있었다. 4학년 때 4·19가 일어나서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라 많이 참 여하여 이 또한 우리들이 나라를 구한 것 도 같았다.

제15회 동기생들은 1961년 3월 28일 졸업한 후, 동기회를 결성하여 졸업 20주 년, 30주년의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했 으나 학문에 대한 허기는 채워지지 않 아, 매달 세미나를 시작해 약 10여 년이 넘어 1백회를 맞이하게 됐다. 1백회를 맞 아, 15회라는 폐가지를 자랑스럽게 마 음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역대 회 장, 임원을 그리고 연차들의 수고에 감사 드리고 지금까지 장소를 제공해준 金一 壽동문계도 감사로 드리며 무엇보다도 적 극적으로 참여해준 동기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뜻깊은 1백회와 졸업 44주년을 맞아 은사 李永玉교수님을 모시고 3월 26 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기념집담회를 개최 해 생원을 이루었고 향후 2백회, 3백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을 다짐하면서,

신 간

古美術저널

—국내 유일의 고미술 전문지



국내 유일 의 고미술 전문지 정보 전문 고상지 인 '古美術 저널'이 이 번 5·6월호 에서 '고려

백자의 美'를 기호특집으로 다루 었다.

·분화 孫一根상임부회장(법학51 입) 前한글국립보 논설위원·경원대 겸임교수)이 새 회장에 취임하면 서 새 편집 진영을 보강하여 한층 알찬 斯界 전문지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미술저널편집>값10,000 원)

공학에 빠지면

세상을 읽는다

—서울대 공과대학 지음



모교 공과 대학과 통사 사이언스의 공동기획으 로 탄생한 모교 공대 출신 리더들 이 청소년에

게 주는 전로 지침서.

이 책은 2004년부터 사회 지도 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명의 공 학인을 직접 만나 공학인으로서의 삶과 자세에 대해 들어 보고, 공 대 교수들이 직접 세부 전공분야 를 소개하면서 각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주는 'Be Scientists!' 프로젝트의 성과를 엮어 퍼 낸 첫 번째 단행본이다. 이 책에 는 공학자가 지구와 인류를 살리 고 지키는 방법들이 소개해 있다. <동서이앤스>값12,000원)

우물가의 은행잎

—金榮義 지음



무하여고 교장을 역임 한 金榮義 (사회교육 49-53 한국 수필문학회가 협회 이사) 동문이 가족

사와 관련된 고달픈 삶의 기록, 그리고 교직 40여 년간의 애환을 소재로 30여 편의 수필을 모았다. 이 책은 어린 적부터 문명적으 로 주어진 의롭고 행복한 삶의 여 건을 진정한 의지와 노력으로 극 복한 인간 승리의 기록이며, 자기 책임인 교직과 교육자로서의 임무 를 전심전력으로 다해 수행하며 겪 은 크고 작은 기록이다.

교역에 찬 남다른 삶을 조용하 면서도 진지하게 또한 끈질기게

도전하여 정복하는 용기와 흥미를 동원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사 하여 진정한 삶의 것과 아름다움 을 풍겨주고 있다. <교육사망>값 5,000원)

귀담아들은 언어생활

—全英雨 지음



KBS 아 나운서실장 을 지낸 全 英雨(국어교 육53-37 수 원과학대학 초빙교수)등 문이 귀담아

들은 언어생활을 제안한 책.

귀담아듣기는 말하기와 함께 언 어 행위의 양면이다. 그리고 읽 기, 쓰기, 말하기와 함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얻어든지 개성 향상 시킬 수 있는 언어생활이다. 이 책은 듣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매사 귀담아들은 결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귀담아듣기의 필요성, 기본작인 자세, 교차하 할 습관, 커뮤니케이션의 현장 등 을 다루고 있다. <민지사망>값 10,000원)

家和清香

—金秀哲회고록발간위원회

부산 김수철성령회의의원 원장 인 日陽 金秀哲(보대원65-67 대 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광역시회

공연

安瑛姬과

떠나는 음악여행

—7월 28일 예술의 전당



파니니스트 安瑛姬(기악83-87 세종대 음대 겸임교수)등문 (사진)이 7월 28일 오후 8시 예 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공연 을 펼친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c단 조, 리스트의 에스페라의 문수, <Stageone 780-5054>

리랩의 밤의 가스파르, 쇼팽의 야상곡, 코플랜드의 열 쌍문 백 시크 등을 선보인다. <공연 문의 : Stageone 780-5054>



신문에 연재한 칼럼, 각종 사회봉 사 활동의 인사말, 부인 姜淑子 (보대원97-00-ACAD 32기 前국 회의원)여사의 의정활동 등이 담 겨 있다. <비애불>

빛과 바람의 화가

이춘기

—이춘기추모집위원회

기독교 미술인회 부회장을 지낸



37 있는 故 李春基 (회 화55-60 前 전주대 교 수)화백의 2 주기를 맞아 부인 金淑子 (회 화 56-60)등문을 비롯한 가족과 李등문 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글을 한 권 에 담았다.

부인 金淑子등문은 이 책 서두 에 못내 그리움 접지 못하고 틈터 의 푸른 시절 생각들과 봄터를 사 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란히 글로 풀어 담아 당신을 기린다고 적고 있다. <한글루터탄일워>값10,000원)

동문 기고

대학이 국제적 생존경쟁의 첨병이 돼야 “논술고사는 인재 선발의 합리적 잣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에 대학 입시제도의 개정을 확정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이러하다.

즉, 2008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 수능고사는 9등급으로 나눠 등급 상향난 표시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대학 입시는 전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등급만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분점제’이라고 해서 첫째 대학별 분고사 실시 불가, 둘째 고등학교 등급제 실시 불가, 셋째 기어입학제 실시 불가를 강력히 못박고 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내신성적도 절대평가제에 의한 성적이 아니라 학급별 또는 학년별 학생들의 상대평가, 즉 한 학급 또는 전 학년 학생 몇 명 중에서 몇째를 했느냐 하는 식으로 등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교의 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잠수화할 경우 각 고교에서의 시험문제 난이도의 완화 경향과 인위적 조작에 의한 고득점자 양산 등의 비리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고교별 내신성적의 공평을 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상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비리의 요인은 어느 정도 예방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일 학급 내, 또는 동일 학교 내의 성적 등급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 급우간의 우애나 화합의 분위기가 무너지기 쉽고 정신적 병리현상까지 일어나는 비교육적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벌써 현실상향으로 각 고교에서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학생까지 발생했다.

또한 대학 입시를 고교 3년간의 내신성적

에 따라 전형할 경우 고교생들은 한 학년 동안에 처리야 하는 1~2학기의 중간고사와 학기말 분고사가 매년 대학 입시적인 성적을 따기 때문에 3개년 동안에 12회의 대학 입시를 치르는 꼴이고, 자기에 다시 수능고사와 대학별 논술 또는 면접고사를 합해서 14회의 입시를 치르는 셈이다.

말하자면 내신제 입시방향을 교수할 경우 고교생들은 3년 내내 대학 입시의 긴장된 경쟁 속에서 보내야 한다. 그것이 과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청소년들은 꿈과 남망을 즐기며 자유분방하고 활발한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요망스러운데 내신제 입시제도는 청소년들로부터 그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고교생들이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신제 입시제도를 실시할 경우 학업과 능 사교육의 폐단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교육당국은 말하고 있지만, 내신제 입시방향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과외수업이 아니라, 내신성적의 등급 향상을 위한 소위 ‘내신과외’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나 각 대학으로서는 등급제 내신의 입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고교별 성적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절해서 전형하는냐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인 것이다. 똑같이 1백명 가운데에서 1위를 했다고 해서 A고교의 1위와 B고교의 1위의 성적수준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절대평가를 할 경우 A고교에서의 1백점과 B고교에서의 1백점의 성적수준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신성적을 입시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 평가방법이 절대평가이든 상대평가이든 간에 대학으로서는 입시전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교의 학교차에 따른 차별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의 입시전형에서 고교 내신성적 외에 ‘논술형 분고사’를 병행 실시할 방침임을 결정하고 그것에 많은 비중을 두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자 기대했다는 뜻이던데, 고대, 서강대 등 유수한 대학들이 서울대의 결정은 옳다고 맞

고 섰지만 동일한 사공 아래서 동일한 조건의 경쟁수단으로 경쟁을 시켜 비교우위를 가려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며 공평하다.

지난날의 과거제도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시행된 인재의 선발제도였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것도 경서의 장문이나 시문 등으로 오늘날의 논술고사와 흡사했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 사항의 지식과 능력고사는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 인물의 인격적인 기본역량과 그릇의 대소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인간의 능력은 능동적 능력과 피동적 능력으로 구분된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피동적 능력보다는 능동적 능력이다. 인류문명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 생존경쟁에서 필요한 것은 창의력인데 능동적 능력은 바로 창의력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논술고사야말로 인간의 능동적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각 대학이 논술고사를 과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또한 지극히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내신제 입시제도를 고집하지 말고 모든 대학이 ‘논술고사’를 필수적으로 과하도록 법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신성적은 고교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교와 학생간의 실력차를 가릴 수 있는 최도로는 부족하다. 각 대학은 학교와 학생간의 실력차를 변별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학 스스로가 마련하는 분고사라는 잣대인 것이다. 논술고사는 극히 최소한의 분고사적 잣대에 불과하다.

대학 입시는 점차 대학별 분고사의 허용 범위를 넓혀 조만간 대학 입시문제는 각 대학의 재량권으로 귀속시킬 것을 권고한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고교의 내신은 그야말로 입시전형의 한 참고자료, 내지는 보조적 자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대학입시의 바람직한 본연의 모습이 될 것이다.



朴 衡 圭

(정치48-57)

대한민국 헌정회 이사

장구를 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틀 일류대학들이 그런 방침을 취하고 나섰는가를 깊이 검토해 봐야 한다. 그들 대학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상기 대학들이 입시전형의 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논술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교육지책(善策之策)으로서 지극히 교육적이며 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까지 교육당국이 그것을 규제하려고 한다면 안된다.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은 인재의 종류와 계통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경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

동창회보를 읽고

건강코너 통해 식생활 중요성 느껴

필자의 관심분야가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것이다 보니 동창회보의 건강코너를 유심히 보는 편이다. '나의 건강법'에 소개되는 통문들을 보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자신에 맞는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식생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1969년에 처음으로 가정대학이 단과 대학으로 독립한 후 '영양학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다. 그 다음 35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또 동창회보를 통해서 대답하게 됐다.

역학조사가 발전하기 전 일반인들은 우리가 성인병이라 불렀던 질병을 유전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 엘라에다 군의 약 7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9년 간의 연구에서 내드라 병을 박사와 레슬라 브래슬로우 박사는 이에 대해 확실히 답을 내놓은 최초의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이 오래 사는 데 영향을 주는 일곱 가지 생활 습관 요인이 1) 7~8시간의 수면, 2) 규칙적인 아침 식사, 3) 간식 안 하기, 4) 정상체중 유지하기, 5) 규칙적인 운동, 6) 금연, 7) 금주라는 것을 밝혔다. 1)번과 5)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가지 요인은 모두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사회에서 사람의 원인을 분석한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식사와 운동부족'이었고, 두 번째 원인은 흡연이었다.

현대인의 건강은 첫째 우리가 무엇을 우리 몸에 넣는가, 둘째 우리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두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이 두 요인은 한마디로 '생활습관(lifestyle)'이다. 로마 린다 의과대학

의 레이본 머독 박사는 "잘못된 유전은 충알을 주고, 나쁜 생활습관은 방아쇠를 당긴다"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필자의 강의도 많이 변화해서 이제는 강의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게 됐다. 떠 학기마다 수강생 중 가족



崔善惠

(식품영양69-73)

애린 영양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과 함께 생활습관을 바꾸면서 불행한 증상들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다. 아직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식생활과 자신의 증상들이 관련이 있음을 모른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당뇨병 발생은 정제곡류, 정제당, 정제지방의 섭취량이 높은 것과 운동부족이 원인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미생물 감염, 해아다 증가하는 암 발생, 현대인이 겪는 알레르기 질환도 면역체계의 문제이고, 면역계의 문제도 식생활과 관계가 깊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취하는 식품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생활·영양학은 만성질환 예방하

타인을 존중하고 용서하는 마음가짐

돌이켜보면 필자가 대학에 입학한 1976년은 관악캠퍼스로 옮긴 첫해로서 교내에서부터 쪽쪽 뚫은 포상도로가 시원하기도 했으나 주변의 나무들은 이제 갖 심어 놓은 것이어서 일새도 없이 웅장한 가지만 올 품에 안은 채 앞으로 잎사귀를 내밀

최고의 지성과 실력으로 무장하여 관계와 법체계, 경제계 심지어는 벤처계에 있어서까지 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반열에 올라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서우며 살아간다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부정과 탐욕으로 지탄을 받아 盧武鉉정부에 이르러서는 서울대 폐지론이 나올 정도까지 위기에 몰리기도 한 우리 서울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서울대인은 자기 잘난 점에 관해서만 너무 자존심을 세우고 부족한 점에 관해서는 예예 또는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에 주위의 신망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돌이켜 내 인생을 살펴봐도 너무 실패를 치르고 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여러 여인을 짝사랑하고도 사랑을 얻지 못했고, 동창들이나 동년배, 직장 상사들과 가까이 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으며, 주변으로부터의 신뢰가 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이 또한 실패의 사례였다.

그러나 필자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크게 화내지 아니하게 됐고 지난 20년간 부부싸움 한번 안 했던 것이다.

우리 서울대인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머리(이성)와 가슴(감성)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머리와 가슴으로 용서한다면 최고의 지성과 실력을 빛내고 지고지존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姜鍾杓

(외교76-83)

법무법인 다우합동법률
사무소 변호사

비만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두 해가 지나자 온 캠퍼스가 푸른 나뭇잎으로 가득했던 기악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생명력이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발휘한다고 하여 열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학생수가 증가하고 강의실, 연구실이 기타 부속 건물이 지어지면서 녹음이 우거졌던 캠퍼스에도 차차 푸른 나무가 설자리가 좁아 지나나 급기야 최근에는 캠퍼스 전체가 어떤 도시 한복판에 들어온 것처럼 건물들이 뿔뿔히 눈앞에 펼쳐진 넓은 시야에 큰 꿈을 지켜보고 녹색 나무 잎사귀와 함께 새록새록 남산을 간직해 보면 아름답고 정겨운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서울대인의 생명력은 어떠한가.

◆인문대 △구구(九九) △권대인간
△김광범(廣) △김구하(下) △김명철(철)
△김광현(顯) △김기삼(三) △김승조(조)
△김원환(환) △김은희(熙) △김해정(정)
△김원국(國) △김정철(철) △나관진(진)
△통성식(식) △문윤승(승) △박상준(준)
△박성우(우) △박진구(구) △박승훈(훈)
△박기훈(훈) △석숙동국(國) △오혜준(준)
△유경철(철) △이건철(철) △이기용(용)
△이현로(로) △이필환(환) △이유경(경)
△이정용(용) △이종정(정) △이종은(은)
△이현목(목) △장기호(호) △정달환(환)
△조영찬(찬) △허용준(준) △홍재민(민)
△홍성범(범) △홍승준(준) △홍재범(범)
◆사회대 △구영수(수) △구운철(철)
△권문성(성) △김 영(英) △김강철(철)
△김관종(宗) △김광우(우) △김기호(호)
△김동중(中) △김병준(준) △김성수(수)
△김성일(일) △김기영(영) △김관진(진)
△김우호(호) △임영철(철) △김경식(식)
△김진기(기) △노조현(현) △류경기(기)
△박 철(철) △박광준(준) △박석진(진)
△박진서(서) △박용준(준) △박석준(준)
△박민우(우) △박민준(준) △박희준(준)

◆정식장식① ◇승승장장② △신운무③
△신정정④ ◇안공친⑤ △인물기⑥
◇오시월기⑦ △오정정⑧ ◇오로기⑨
◇원정백⑩ △우영우⑪ △이동성⑫
△이범준⑬ △이범준⑭ △이재문⑮
△이종준⑯ △이태영⑰ △이태영⑱
△전산석⑲ △전영배⑳ △전동식㉑
△전현영㉒ △전성숙㉓ △정진호㉔
◇조영준㉕ △조주대㉖ △조진형㉗
△최병길㉘ △최봉인㉙ △최수근㉚
△최재훈㉛ △최정문㉜ △최정현㉝
◇전진

◆ABP ◇감조중㉞ △김경호㉟
△김성일㊱ △김영근㊲ △김정식㊳
△김진태㊴ △박상기㊵ △남영진㊶
△서승원㊷ △송문진㊸ △신형보㊹
△양만갑㊺ △오대욱㊻ △이계용㊼
△이성락㊽ △이성호㊾ △위대석㊿
△허서규㉑ ◇황선근㉒

◆SGS ◇김광두㉓ △김영태㉔
△김희철㉕ △양정희㉖ △박준민㉗
◇변복호㉘ ◇안광정㉙ △유규곤㉚
△이성환㉛ △이영태㉜ △이창근㉝
△이장섭㉞ ◇홍용연㉟

◆OHN ◇박은수㉑ △이영연㉒
◆APC ◇김성훈㉓ △김창호㉔
△김복진㉕ △김정환㉖ △김정식㉗
△김기태㉘ △박승진㉙ △서하용㉚
△선동우㉛ △손일곤㉜ △안성현㉝
△오유환㉞ △유영재㉟ △이범희㊱
△이성환㊲ △유기현㊳ △이광수㊴
△조성규㊵ △조성철㊶ ◇황경태㊷

◆HPM ◇부유식㉑ △경준호㉒
◇김민호㉓ △권재학㉔ △성민만㉕
△김승표㉖ △김일용㉗ △김주필㉘
△박 문㉙ △서판석㉚ △서원영㉛
△오유환㉜ △오용섭㉝ △유대환㉞
△유석모㉟ △유영용㉑ △유진철㉒
△이정철㉓ △이공우㉔ △이부남㉕
△이부인㉖ △이한규㉗ △장성호㉘
△정지문㉙ △조정현㉚ △송승용㉛
△한상진㉜ △한훈상㉝ △홍성희㉞
◆AMPP ◇김종태㉑ △김영식㉒
△신기찬㉓ △안상훈㉔ △이영호㉕
△이영근㉖ △진노식㉗

◆AIC ◇고석근㉑ △김광훈㉒
△김정옥㉓ △이성일㉔ △이정호㉕
△이정명㉖ △임상규㉗ △임진환㉘
△조정주㉙ △최명선㉚ △하현록㉛
△최규준㉜

◆AFB ◇김순애㉑ △김영민㉒
△이철우㉓ △전철호㉔ △정성모㉕
△한상진㉖ ◇전진

◆AMFFRI ◇강정목㉑ ◇권 순㉒
△김태봉㉓ △김복환㉔ △김득동㉕
△김동국㉖ ◇김진석㉗ △김대영㉘
△박태열㉙ △박용환㉚ △배삼수㉛
△배기현㉜ △신상호㉝ △이금송㉞
△김영수㉟ △정지택㉑ △조기조㉒
△최규호㉓

5 월 계 : 64,256,280원
 평생회비 : 47,271,600원
 입 회 비 : 4,440,000원
 찬 조 금 : 60,501,020원
 총 계 : 770,582,505원